

2022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2022. 12.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CONTENTS



I.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1. 30대도 공공기관 취업이 가능한가요? YES!	6
2. NCS, 방향할 자유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	11
3. 41살, 신입사원입니다	15
4. 직무능력중심 채용: 용기와 희망을 주다	19
5. '실패'를 '스펙'으로 - 30대 중반의 인생 첫 입사	24
6. 취업의 기본,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28



II. 청년인턴

1. 인턴 도전으로 부린 씨앗, 정규직 합격으로 열매 맺다	36
2. 난 청년인턴 경험만으로 전문 직렬에 취업했다	39
3. 청년인턴, 길었던 취업 준비에 종지부를 찍다!	43
4. 취업의 이정표가 되어 준 '청년인턴제도'	47
5. 청년인턴, 당신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낼 첫 시작입니다	51
6. 네 번의 청년인턴, 좌절감을 자신감으로 바꾸다	55



Ⅲ. 고졸 채용

1. 19살, 너도 취업할 수 있어!	64
2.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얻은 '합격'의 결과	68
3.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	74
4. 나는 바다로 출근합니다	78
5. 302등의 성적, 변하기 위한 노력과 마음가짐	82
6. 걸림돌을 디딤돌로	86



IV. 지역인재 채용

1.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성장 사다리	92
2. 지역인재 채용, 너도 입사했네? 나도 할 수 있어!	97
3. 길라잡이가 되어 준 지역인재 채용	102
4.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106
5. 지방대생의 금융공기업 입사 일기	111
6. 공학도, 지역인재 채용을 향한 지도(MAPS)를 그리다	116



V. 장애인 채용

1. 출발선상이 다르다 해도 행복해 질 수 있다	122
2. 장애인이기엔 남들과는 다른 공공기관 입사 과정	127
3. 0.005% 확률의 특별한 사람	130
4. 장애라는 경계를 넘어 사회라는 공간에서 지도의 정보를 보며 나아가는 나	134
5.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138
6. 절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43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ular shap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rounded rectangular bars of varying lengths.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 1 30대도 공공기관 취업이 가능한가요? YES!
- 2 NCS, 방향할 자유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
- 3 41살, 신입사원입니다
- 4 직무능력중심 채용: 용기와 희망을 주다
- 5 '실패'를 '스펙'으로 - 30대 중반의 인생 첫 입사
- 6 취업의 기본,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30대도 공공기관 취업이 가능한가요? YES!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



돌고 돌아 공공기관을 꿈꾸게 된 나이 28살, 남들보다 진로 선택의 과정이 길었을 뿐 결코 늦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NCS(직무능력중심) 채용에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차별도 받지 않았습니다. 늦깎이 취업준비생이었지만 끝내 공공기관 현직자로 취업준비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단연코 NCS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2014년, 4년제 경제학과를 졸업할 당시의 저는 금융권(사기업) 입사를 희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관련 금융기관에 종사해 보니 저와 맞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다시 취업시장에 발을 내딛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매정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뒀?’, ‘다른 곳에 가면 괜찮을 것 같아?’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제게 혼란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NCS 채용이 있었기에 용기 낼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총 7번의 지원을 거치며 여러 번 탈락의 쓴맛을 보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평한 채용전형 아래 계속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1년 하반기, 31살의 나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라는 목표를 해내고야 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화려한 스펙이 없어도,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공단에 입사하기까지의 준비과정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NCS 전형, 취업준비의 나침반이 되다

2018년, 사기업 퇴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 서류를 지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스펙은 '3년 정도의 사기업 경력과 금융 및 회계 자격증'이 전부였습니다. 공공기관과 관련 없는 경력과 스펙을 가지고 지원하면서 처음부터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류합격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그 상황이 신기하기도 했고 떨떠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댄 내가 어떻게 서류합격을 할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보니 자기소개서에 녹아든 제 경험들이 인정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수한 대학, 높은 학점 등으로 '나'라는 사람이 평가되어 스스로에 대한 무능력함을 탓하기도 했었는데, 직무능력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에서는 여태까지 쌓아 온 크고 작은 제 경험들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는 저를 자연스레 공공기관으로 이끌었습니다.

2. 7전 7승의 원동력, 정량+정성

NCS 채용이라고 해서 스펙을 아예 보지 않고 직무경험이 많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여러 공공기관에 지원했지만, 반 이상의 기관에서는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 NCS 채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 경험을 성의껏 '작성'하는 것에만 집중했었지만, 이후에는 각 공공기관에서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을 뽑고자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공공기관의 채용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며 요구하는 평가항목들을 분석해 보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기업을 퇴사하고 짧은 휴식기를 가진 뒤, 토익학원부터 등록하기 시작하여 어학 및 자격증 등을 취득했고 공단을 포함한 세 곳의 공공기관 인턴 경험을 쌓아 가면서 공단 정규직 서류전형에서 요구하는 정량적인 평가항목을 최대한 갖추고자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정성적인 요소(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를 향상시켰습니다. 공단의 서류전형에서는 정량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 또한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며 블로그, 취업카페나 스터디를 통해 접하게 된 합격 자기소개서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질문에서 요구하는 NCS 영역(의사소통능력 등)에 적합한 경험을, 묻는 말에 중점적으로 답하고, 행동노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유의하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자 했고, 경력기술서 또한 ‘직무능력중심’이라는 같은 맥락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단의 직무기술서를 보면 필요한 직무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단순히 지원자가 어떤 일을 했구나가 궁금한 게 아니라 해당 업무를 통해 배운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겠구나를 보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NCS 채용이라는 것을 매번 상기하며, 이에 기반을 둔 서술방식이 일곱 번이라는 도전에서 한 번도 서류탈락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큰 이유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3. 수적천석(水滴穿石), 꾸준함이 만들어 낸 ‘필기합격’

서류전형에 통과하게 되면 ‘필기전형’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사기업 인적성만 공부하다 접하게 된 NCS 기반 필기시험은 제게 생소했고 어려웠습니다. 두세 권의 기본서를 풀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오르는커녕 슬럼프에 빠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단을 비롯해 여러 공공기관의 필기시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도전해 보았고, 만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닌데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고자 함에 집중했던 것이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지(효율성)가 중요했던 것임을 알고, ‘버릴 문제는 빠르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버리자’라는 기준을 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출판사의 봉투 모의고사를 1일 1개씩 풀어보면서 약한 문제유형 등을 파악하며 버릴 문제를 골라내는 안목을 길렀고, 공단 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실전처럼 연습해 보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필기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자기 객관화 = '나라서 할 수 있는 답변'

마지막으로 '면접전형'입니다. 앞서 두 번의 최종탈락을 겪은 상태로 순간의 실수와 부족함을 되새기며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면접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이전과 다른 확실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처럼 기출 질문과 답변들을 무작정 준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객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면접답변에서 포장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조직원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일관성을 가지고 일관된 면접 답변을 준비했고, 저라는 사람을 꾸며 내기 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공단에 입사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라는 질문에 예전이었던 제 경험과 역량을 드러내기 바빴겠지만, 당시 면접에서는 '제도적 설명뿐만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직원이 되고 싶다.'라는 답변으로 공단과의 접점이 있었던 경험과 이를 통해 다짐한 포부를 차분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면접에서야 '나를 다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합격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돌고 돌아 합격의 목걸이를 비로소 걸 수 있었습니다.

5. 이 글을 마치며...

'○○○님, 축하드립니다. 귀하는 2021년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최종합격'이라는 합격 창을 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3년 6개월의 울고 웃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NCS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 더 빨리 깨우쳤더라면 단기간에 공공기관에 입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지만 결국 목표하던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에 감사한 마음이 더 큼니다. 제 글이 '30대도 공공기관 취업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늦은 나이에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원동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각자에 맞는 속도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주눅 들지 말고 여태 잘 해 왔던 대로 꾸준히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합격선에 도달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순간을 응원하겠습니다!

NCS, 방황할 자유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

통일연구원 | 김○○



몇 년 전부터 수저론이 대두되며 개천에서 용 나는 신화는 종결되었다는 기사들이 들끓었습니다. 같은 사회의 출발선에서 배경의 다름으로 가슴 아파했던 청년들의 현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한 기사에서 취업 시 어떤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냐는 인터뷰에 의외로 ‘실패할 기회·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꼽혔던 기억이 납니다. 즉 대학입학-전공선택-해외연수-스펙준비-알맞은 나이 등의 수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취업이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은 전공 선택을 고민하여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학비를 벌며 학교를 다니다 연수를 가지 못할 수 있으며, 생계를 위한 일을 하다가 일정 나이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직무능력중심 채용으로 변경되면서 청년들이 방황할 수 있는 자유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방향 없는 취업준비도 해 보았고 여러 전공을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으며, 현실을 위한 취업으로 일정 나이도 지났었습니다. 그러나 NCS를 기준으로 직무에 맞추어 다시 준비하고 도전하여 제가 꿈꿔 왔던 공공기관의 원하는 직무로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직무능력중심 채용이 아니었다면 일명 여자 취업 마지노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에서 좌절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방황해야 할 자유를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는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저의 짧은 과정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Q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경영학과’는 아니었지만 당시 문과 취업 선호 1순위인 경영학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최대한 비슷하게 분류될 수 있는 학문을 복수로 전공하였습니다. 경영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하며 이력서를 한 줄 한 줄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력서 100통’, 온갖 매스컴에서 활용하고 성공담과 실패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그 단어, 저 또한 100번의 고배 속 냉담한 거절과 좌절을 겪으며 최종으로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Q 회사라는 배경이 없어졌을 때 나는 무엇으로 남을까?

직장 생활 초기는 기분 좋은 긴장과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공감하는 비어 섞인 용어들이 익숙해 질 때쯤, 어떤 일·업무의 전문가보다는 조직 생활의 달인이 돼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신청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매주 본 시험, 탈락의 결과를 어느 회사에서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제출한 이력서 위에서 일단 회사라는 배경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 배경이 사라진 순간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권 사람일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이 도입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도입된 제도로 채용 시작의 판(나이, 학벌 등 스펙→직무능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무능력으로 취업해 한 직무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일로서의 자아’를 찾는 과정으로 다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Q ‘일로서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시작하다

가장 먼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통해 제가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직무를 찾았습니다. 현재도 NCS 홈페이지(ncs.go.kr)에 접속하면 직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어떤 업무태도가 필요한지 매우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사직’으로 분야를 설정하고 제가 습득해야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하나씩 찾아가기 위해 계획과 실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학부보다 세부 분야를 깊게 학습할 수 있는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였습니다. ‘인사직’에 필요한 지식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전공이 있는 학교를 택하여 지식 습득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배운 지식을 기술로 남기기 위하여 ‘실무’ 기회를 얻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직장과 병행하며 수학하던 시절에는 직장의 제 업무뿐만 아니라 제가 습득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는 팀의 팀원들, 선배들에게 하나씩 물어가며 잔업을 도와 일의 흐름도를 직간접적으로 익히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4년 정도의 직장 경력을 직무이론에 맞추어 흐름도와 업무 세부사항을 일련의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전일제로 대학원을 다닐 때도 방학기간을 놓치지 않고 노무법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식과 기술의 공백을 채우고 함께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HR) 관련 잡지와 세미나에 참석하여 최근 노동 관련 이슈를 분석하였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직무 전문가들과 스터디 모임을 통해 현업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과 현업에서 일을 이루어 가는 데 필요한 자세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였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채용 흐름과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 발짝 내딛었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다시 도전하는 시작점에서 이미 30대로 접어들었으며, 실패하였을 때 돌아갈 곳이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최고는 아닐지라도 재직 중인 직장을 두고 꿈을 꾸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던 선택은 아닐지? 사실은 변하지 않을 스펙 위주의 취업세계에서 앞으로를 전망하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생각과 길을 택한 나는 너무 우매했던 것은 아닐지? 신입사원 평균 나이를 넘는 내가 이 전선에서 가능한 도전을 하는 것이 맞을지? 많은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습니다. 하지만 직무능력중심 채용 도입 후 다양한 스펙을 가진 지원자들의 합격 수기를 읽으며, 틀을 세워 노력하던 것들에 집중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졸업 시점에 다시 채용시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놀란 것은 직무능력중심으로 바뀐 시장의 채용 트렌드였습니다. 사기업까지 포함하여 공공기관 채용이 정말 직무 중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첫 취업 준비 때의 이력서와 달리 직무교육사항과 세부내용을 기재하고 실제로 그 직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관련 경험을 상세히 기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서류전형을 통과한 이후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필기(시험)과목과 면접항목들이 사전에 공고되어 있었습니다. 생뚱맞은 것을 준비하다 현장에서 하나도 쓰지 못해 허탈해 하던 마음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험과목도 제가 지원한 인사직은 “인사직무” 시험으로 나왔으며, 이를 위해 공부해 왔던 지식들을 풀어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면접질문 또한 구조화되어 직무의 지식과 경험, 이를 위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참고해 준비한 대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2년의 과정을 지나 제가 원하던 직무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전, 2~3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여러 해의 시간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이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취업시장은 쉬운 적이 없었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그러나 채용 트렌드의 변화로 타고나가거나 바꿀 수 없는 스펙이 아니라 ‘일과 직무’에 집중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예전과 다르게 많은 청년들과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그룹에서 단순히 취업이 아닌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일로서의 자아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직무능력중심 채용은 방황할 수 있는 자유,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로서의 자아’를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짧은 수기를 마칩니다.

41살, 신입사원입니다

강원랜드 | 이○○



🔍 나는 안되는 사람

“...귀하의 재능은 유능하나, 저희 ○○기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또 탈락이다. 벌써 몇 번째인지 세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더 이상 세는 것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떨어진 것이다. 이젠 눈물도 나지 않는다. 이미 마음의 상처로 누더기가 된 감정은 바늘 하나 꽃을 자리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누군가는 술 한 잔 마시고 풀어버려라, 또 다른 누구는 여행 다녀와서 훌훌 털어 버리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술을 마실 줄도 모르고, 여행을 다녀올 여유도 없다.

왜냐하면 내 나이는 스물, 서른을 지나 40살이 되었기 때문이다.

🔍 상처받은 블라인드 채용

2년 전까지 계약직만 머물던 자신이 부끄러워 호기롭게 퇴직을 선언할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떨어지고 보니 그때 블라인드 채용에 어울리지 않는 진행으로 인해 아쉽게 떨어졌던 ○○문화재단이 생각났다.

당시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지원했었고 운 좋게 최종면접에 입할 수 있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최종합격을 하는 기분 좋은 상상과 함께 나이가 많은 단점이 탈락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밀려왔다.

면접 당일이 되었고, 자신감이 넘쳐 있었다. 자기소개를 한 이후에 면접관이 던진 첫 질문이 내 말문을 막히게 하기 전까진 말이다.

“○○씨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A기업을 그만두신 이후에 공백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답변을 고민하는 그 1~2초 사이에 오만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뒤덮었다.

‘뭐지? 블라인드 채용은 나이와 공백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묻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어지러워진 나머지, 뭐라 대답한지도 모르게 면접이 끝나 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나이와 경력 공백이 단점인지라 자기소개서에서도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고, 해당 문화재단에서도 나이와 경력은 면접위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접이 끝나고 나는 항의를 할 수도 없었다. 자칫 굵어 부스럼으로 최종탈락이 될 수도 있는, 또래보다 나이 많은 지원자였기 때문이다.

결과는 또 탈락. 이번에는 후유증이 컸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불신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이젠 그 무엇도 믿기 힘들었고, 나아가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자조적인 한탄만이 입가에 맴돌았다.



끝없는 도전과 용기

하지만 나는 고민과 자책을 한다는 것도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40대, 그리고 내년이면 한 살을 더 먹게 된다.

길거리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물들어 가던 12월의 어느 날, 나는 강원랜드 서류전형 합격메일을 받았다.

필기시험은 까다롭다고 느껴질 정도로 엄격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다. 문제는 되레 어렵지 않아 동점자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운 좋게 합격할 수 있었다. 예상대로 커트라인은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취준생들과 면접을 보게 되었다.

기쁨도 잠시, 면접을 앞두고 기업조사를 하면서 다시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강원랜드는 몇 년 전 전국을 들썩이게 한 채용비리가 벌어졌던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나이를 가진 나로서는 더욱더 불안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곳이기에도 보다 더 엄격하게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고민할 시간에 기업을 이해하자

고민에 빠지기보다 현재에 집중하자는 각오를 다지면서 자기소개를 다듬었다. 그리고 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카지노산업 리포트를 숙지하면서 해당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 반복해서 읽어 보았다.

이에 더해 유사한 산업 직종인 한국마사회 지사운영지원팀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경험을 접목시킨 예상답변을 준비하기도 했다.

두 기업 모두 신규유입 고객이 감소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고객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다는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독성 있는 오락임을 감안하여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나만의 방안을 고민해 보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면접 전날에 도착해 카지노를 경험해 보기로 했다. 내부 직원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카지노와 부대시설을 이용해 보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과 개선사항을 메모지에 옮겨 적고 입으로 수없이 되뇌어 보았다.



대망의 결승점

마침내 면접날이 되었고, 나는 당일 아침까지도 강원랜드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첫 번째 토론면접은 찬반주제에 대한 다대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자신의 의견을 준비하고 대답하되 객관성 있는 근거를 제시했고,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충분히 경청하는 모습을 유지했다.

두 번째 인성면접은 다대다 면접으로 면접관 중 과반수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되 간결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했다.

예를 들어 ‘합격하고 주말에 무엇을 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최근 강원랜드 뉴스에서 나온 레저시설 인력지원 이야기를 근거로 업무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레저자격증을 준비하겠다.’라며 기업의 고민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더한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결과는 최종합격. 나는 정선행 무궁화호 열차에 몸을 실었다.



블라인드 채용과 신입사원증

주변에서는 ‘이제 그 정도면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도 틀리진 않았다. 하지만 최종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이고 그 결과도 오롯이 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찍 취업한 내 친구는 이미 과장이 되었다. 나는 조금 늦게 출발하는 것도 다르지만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41살 햇병아리 신입사원은 나이와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만을 평가한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라면 탄생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직무능력중심 채용: 용기와 희망을 주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순간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입사 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인턴들과 주위 취업을 준비하는 지인들을 보며 아직까지도 취업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큰 무게를 차지하는, 중요하면서도 힘든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취업과정 속에서 저에게 한줄기 빛과 같았던 블라인드 채용과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입사한 후기에 대해 간략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chapter 1. 용기,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

금융기관 취업을 준비하며 솔하게 들었던 질문은 “왜 금융자격증이 없어요?”였습니다. 이런 질문은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제가 처한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금융자격증도 없고, 학과도 금융과 관련된 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채용시장에 나와 보니 쟁쟁한 스펙과 높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충분히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 왔다고 자부하였지만, 결국 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격증과 정량화된 스펙뿐이라는 생각에 커다란 한계가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학벌이 뛰어나지도, 스펙이 그리 많지도 않은 저는 제가 가진 일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면접에서 보여주고 싶어도 서류에서 빈번히 떨어지며 많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2019년 운이 좋게도 한 사기업에 채용되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일을 하였고, 점점 이에 대한 회의감은 커져 갔습니다. 특히 공익적 가치를 중요시하였던 저는 국민의 삶에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준비를 하며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직장을 옮기는 것은 저에게 매우 큰 용기와 준비가 필요한 도전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서의 이동에 용기를 주고 이직의 두려움을 없애 준 가장 큰 것은 바로 블라인드 채용, 직무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이었습니다.



chapter 2. 격차를 줄이는 NCS 직무능력 채용과정

사기업과 공기업의 특성과 준비과정은 매우 달랐기에 처음엔 시작하는 것이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정보는 생각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기업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는 ‘알리오’에, 기본적 직무기술서는 ‘국가 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에 모두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취업카페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소위 학교 내 커뮤니티, 취업학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공공기관 취업으로서의 마음이 정해지자, 준비하는 과정은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추가로 스펙을 쌓을 걱정 없이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며 원하는 직무를 선택했고, 그에 맞는 학습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써야 할 능력을 직무기술서를 통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었고 필기시험 과목과 출제비중이 정확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충분히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를 하며 금융기관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 금융지식을 공부하였고,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일하고 싶은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적고 제 경험을 연결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근무자로서의 윤리의식,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도 생각했습니다. 면접과정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능력과 평가하는 기준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

에 그에 맞추어 준비하기 수월했습니다.

이를 통해 느낀 NCS 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과 블라인드 제도의 대표적인 두 가지 장점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채용제도의 확산으로 점수 및 등수 공개, 취업설명회 등 취업준비생들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채용제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필기전형도 모두 객관식으로 바뀌어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욱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준비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준비생 스스로에게 맞는 회사를 찾을 수 있고,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 양방의 입장에서도 매우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류, 필기, 면접의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블라인드로 이루어지고, 모든 면접의 질문과 과정도 NCS에 기반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지원자를 평가할 때도,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더욱 정확히 골라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의 수혜를 받은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스펙을 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기업에 맞는 사람인지 스스로에 대해 고민해 보고 본인의 적성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hapter 3. 고객의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주택보증, 주택연금 공급을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저 또한 이러한 주택금융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복지증진과 주택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보증 업무를 맡아 대출이 적법하게 취급되었는지 심사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를 하며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필요지식과 기술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직과 업무를 위한 저의 노력임과 동시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회사의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직 전 가장 중요시하였던 공익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특수한 주택금융 업무를 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NCS 기반 채용에 따라 그에 맞춘 업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었고, 지사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직무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 직무능력중심의 채용과 평가가 회사와 개인에게 모두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재밋지에’ 등의 공사 설명회를 통해 지원자들로 하여금 주택금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공사의 업무를 쉽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제도의 도입으로부터 이러한 일련의 문화들이 생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결국 기업과 취업준비생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hapter 4. 나아가야 할 방향

블라인드 채용제도와 직무능력 평가에 있어 다양한 이점이 존재하지만 블라인드 채용 과정은 결국 실보다는 득이 훨씬 큰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 지원자 입장에서는 나이, 성별, 지역, 학벌, 스펙 등을 초월하여 직무능력에 맞게 채용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한 직무능력을 미리 알 수 있어 직무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회사는 기업에 가장 필요한 인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재양성의 지침서로서 역할을 하며, 앞서 서술하였듯이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든 기업이 가진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인재를 뽑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적금융을 통한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적 요구 확대,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공공기관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적 의무일 것입니다.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수행 태도의

비정형화된 가치들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세분화해 나가고, 그러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NCS에 기반하여 세심한 커리어 개발을 이룰 수 있는 조직 내의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채용방침의 체계화와 유연성을 더욱 길러야 할 것이며, 직무능력 평가체계를 더욱 세심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블라인드 제도와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가 시행이 되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공정한 채용제도가 또 다른 불공정을 낳지 않기 위한 지속적 채용제도 개선과 직무능력에 따른 업무수행능력과 필요태도를 겸비하는 등 정부, 공공기관, 개인이 함께 노력한다면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실패’를 ‘스펙’으로 - 30대 중반의 인생 첫 입사

한국국토정보공사 | 장○○



🔍 시험 결과 - 불합격

2021년 1월 말, 코로나로 인해 조금 늦어진 변리사 시험의 최종발표가 컴퓨터 화면에 뿌려졌다. 1차까지는 성공했지만, 결국 마지막 벽을 넘지 못하고 내 도전은 단 세 글자로 마무리를 지었다. 6~7년을 준비한 시험이었다. 미련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거짓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더 이상 내 욕심에 유예를 주지 않았다.

내 상황을 정리해 보자. 2021년 2월 당시 나는 만 33세의 인턴 경험이나 스펙,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수험용 법률 지식이 조금 있는 학부 졸업생이었다. 또래들이 근 10년의 회사 경험을 가지고 이직이나 승진을 준비하고 있던 때에 나는 말 그대로 ‘백지’로 취업판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나라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범주에서 1년 여만 남겨 놓은 상황이었다.

사기업을 준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 능력 위주의 채용이라고 하지만 스펙과 경험 없는 34세라는 ‘역 스펙’은 내가 목표로 하는 취업에 있어 거대한 장애물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블라인드 채용을 떠올렸다. 지원자의 학력, 나이, 지역, 가족관계와 같은 부분을 배제하고 업무와 직무 관련 능력만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은 나에게 해 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나보다 나이 어리고 스펙도 잘 갖춰진 친구들과 경쟁해야 하겠지만, 그것도 하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그렇게

나는 블라인드 채용을 보장하는 공공기관을 목표로 잡기로 했고, 컴퓨터 전공을 했었기에 직무는 자연스럽게 IT 계열의 전산직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공공기관 전산직에 취직하겠다!’라고 목표만 세웠을 뿐, 수험공부만 했던 나는 어디가 공공기관이고 주된 채용 시즌이 언제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가뜩이나 전산직은 회사마다 채용하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요구하는 직무능력도 천차만별이다 보니 그만큼 정보도 매우 부족했다. 전공을 놓은 지 오래인지라 전공 지식을 복구하는 데에도 오랜 기간이 걸렸다.

우연히 기회가 닿아 공공기관 전산직 채용 스터디에 참석하여 관련 정보와 취직 공부를 하게 되었다. 스터디에서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하는 아찔함이 느껴졌다. 공공기관만 해도 수백개가 존재하고 전산직에도 여러 업무가 있으며, 그 업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직무 능력과 NCS에 의해 분류된다는 것을 스터디를 통해 처음 알았다. 그저 NCS라는 것이 시험의 명칭인 줄 알았던 나로서는 큰 충격이었다.

스터디 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스터디원에게 첨삭을 받을 때 리더였던 분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왜 변리사 시험공부했던 내용은 자기소개서에 쓰지 않으세요?”

나는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해 버렸다. ‘아니 그걸 왜 적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나에게 있어서 변리사 시험은 인생의 크나큰 ‘실패’였다. 이것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것부터가 내 치부 하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은 10년 전 대학교 학부생에서 겪었던 보통의 경험 정도밖에 없었고,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아무런 매력도 없는 평범한 자기소개서로 완성되어 갔다.

스터디 리더분은 변리사 시험공부도 너무 매력적인 경험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하지 않았던 그 경험이야말로 대학교의 여러 경험보다 훌륭한 ‘스펙’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 조언 덕분에 내가 취업을 향해 가졌던 마음가짐이 근본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는 시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실패라고 보았고, 그 실패는 건질 것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취직 준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채용과정에서 탈락할 때마다 실패했다는 자괴감이 나를 지배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실패에서도 건질 것이 있다. 실패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다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탐구하고 노력했다면 '실패'도 훌륭한 '스펙'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니, 이후의 취직 활동에서도 멘탈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필기 전형이 어려웠어도, 떨어질 것 같아도 좌절하거나 미련을 두지 않았다. 다만 그 시험에서 무엇이 어려워 탈락했는지, 다음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를 탐구했다.

면접 준비도 마찬가지였다. 첫 면접의 무지와 처음으로 겪어보는 압박감은 탈락을 안겨 주었고, 그 면접이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였던 만큼 많은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그 떨림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고, 준비하지 못했던 면접관님들의 질문들을 곱씹으며 다음 면접 때는 절대 이 부분에서 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준비했다.

그렇게 나는 '실패'를 양분 삼아 나만의 '스펙'을 만들어 가게 되었다. 그렇게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 올리다 보니 떨어지기만 하던 시험과 면접에 하나둘 불기 시작하고, 드디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최종면접 자리에 오게 되었다.

면접에서 면접관님은 나에게 “변리사 공부를 했다고 자기소개서에 쓰셨는데, 그 경험이 회사에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셨다.

“저는 변리사 공부를 통하여 법의 해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리걸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하실 때, 아버지의 회사가 고용 승계를 무시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근로기준법」을 확인하고 고용 승계와 관련된 판례들을 찾아보면서 아버지의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가지고 가서 쟁의한 끝에, 아버지의 퇴직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ICT 업무를 수행하면서 ICT 전공지식 이외에도 여러 관련 규정과 법령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제가 공부한 법의 범주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수험생활을 통하여 습득

한 이 리걸 마인드가 그런 규정 분석과 해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에도 여섯 개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공간 정보와 디지털 트윈 구축에 관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며 회사를 알아보면서 만날 수 있었던 특허들이 너무나도 반가웠고, ICT 직무 안에서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활용할 수 있는 특허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특허 출원을 함에 있어서 ICT 직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탐구하고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나는 첫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직장생활을 겪어본 지 반년도 안된 나는 사실 직장인의 고충이나 업무 스트레스는 잘 모른다. 지금은 그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정신없고 재미있지만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부분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업무적으로나 인간 관계적으로나 수많은 실패가 내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실패가 두렵지 않다.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하며 실패를 통해 한 단계 나를 성장하게 하는 스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취업의 기본,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한국남동발전 | 박○○



🔍 틀에 박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본을 지키는 것

120km/h의 느린 속도의 공으로 프로야구를 제패한 유희관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투수의 공은 무조건 빨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본을 지키며 성공한 투수입니다.

타자가 칠 수 없는 코스로 스트라이크 존에 던지는 것, 사실 그게 투수의 기본인 것을 알려준 선수였습니다.

취업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기르는 것, 그게 취업의 '기본'이며 구인자나 구직자 모두에게 윈윈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직무능력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학벌, 스펙이 중요시되고 있고, 구인·구직의 난이도가 높아져 취업시장의 유연성과 청년 실업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운 좋게도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덕분에 '기본'을 지키며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 취업의 기본을 알려 주는 NCS 직무분류표

졸업할 즈음, 공기업·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이 확대되고 있었고, NCS 직무분류표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발전공기업 화학직군의 채용공고를 통해 ‘화학물질 분석능력’과 ‘환경관리’가 중점 직무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생 시절 실험과목에 흥미를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소재 실험실에서 졸업논문을 작성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화학물질 분석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나름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졸업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족집게 과외 선생님이 기본을 알려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인 ‘화학물질 분석능력’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집중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벌은 물론이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대단한 스펙 없이도 발전공기업 화학직군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 현장 적응의 기본, NCS 기반 채용

나무를 이식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존에 자라던 토양의 환경을 파악하고, 이와 가장 비슷한 토양에 심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NCS 기반 채용방식은 어린 나무가 직장이라는 새로운 토양에서 굳건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취업 이후 ‘화학물질 분석능력’ 직무능력과 실전 경험을 더하며 난관을 극복하고 윤활유 분석원 보직에 빠르게 적응한 경험이 있습니다.

연료유는 보일러를 기동할 때 사용하며 초기 점화와 발전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윤활유 분석원이 이를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직을 맡은 직후 기존의 연료유를 변경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저는 연료유의 교체가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학부생 시절 유기소재 실험실에서 다양한 성상의 물질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 연료유의 차이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료의 연소 기준이 적합한지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외부 분석기관과 협의하였고, 이를 주기적으로 체크했습니다.

일정 기간 후 '10% 잔류탄소분' 항목이 기준 내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고, 그 후 연소테스트를 적합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입사 초기에 연료유가 변경되는 어려운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NCS 기반 채용방식 덕분에 저와 회사의 환경을 일치시킨 상태였습니다. 자라난 환경과 비슷한 토양에서 뿌리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난관을 이겨내고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도적 허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블라인드·NCS 기반으로 취업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손에 닿을 때까지 기본 스펙이라는 허들을 먼저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NCS 기반의 채용방식이 도입된 지 7년이 되었지만, 채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기존 스펙중심 채용방식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실업률과 공공기관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겹쳐, 갈수록 역대급의 취업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자를 걸러 내는 도구로써 스펙과 필기시험의 허들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허들을 통과해야만 NCS에 기반한 본인만의 직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갈 길이 남았지만, 지나온 길을 반추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NCS 기반 채용의 철학과 프로세스를 더욱 보완한다면 미완의 스펙 타파도 먼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직 남아 있는 절반의 스펙 허들을 점차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찰해 보았습니다.

1. 관심 단계: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확대

블라인드·NCS 기반 채용의 취지와는 다르게 기업들의 취업설명회는 수도권, 대도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구분 없이 찾아가는 취업설명회를 확대하고, 수시로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구직자들이 본인의 능력과 적합한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준비 단계: 블라인드·NCS 직무능력중심 채용 100%화

여전히 앞서 서술한 기본스펙을 요구하고 있는 기업도 많으며, 고착화된 필기시험 방식으로 난이도만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수 직무를 제외하고, 기본 스펙은 100% 배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지와 무색한 지역적인 문제는 지양하고, 현장 직무와 가까운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해당 직무능력이 필요한 사례를 직원들로부터 공모를 받고, 전문 출제기관에서 이를 정제화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입사 후 단계 : 세부 보직별 필요 NCS 기반 능력 현실화

저의 사례를 돌아보았을 때, 블라인드·NCS 기반 채용방식은 취업 이후 본인의 능력과 보직이 일치할수록 시너지를 더욱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부 보직에 필요한 NCS 기반 능력을 현실화·체계화하고, 업무 적응을 위해 갖추고 있는 능력에 맞는 보직을 맡기도록 기관별로 인사노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 취업의 기본,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상술한 바와 같이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은 제가 취업에 관심-준비-취업 이후까지도 취업의 기본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를 스펙이라는 장애물 없이 빠르게 이어주며 자신의 능력만을 집중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청년 취업률과 취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취업 인구가 줄어들고, 취업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비교적 해소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사기업 채용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시장을 인큐베이터 삼아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더 효율적인 방식을 개발해 낸다면,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방식이 진정한 취업의 기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한 입사수기와 제의가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취업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ular shap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bars of varying lengths and thicknesses, some with rounded ends. The top and bottom edges of the page have a white background with a fine, diagonal hatched pattern.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I

청년인턴

- 1 인턴 도전으로 뿌린 씨앗, 정규직 합격으로 열매 맺다
- 2 난 청년인턴 경험만으로 전문 직렬에 취업했다
- 3 청년인턴, 길었던 취업 준비에 종지부를 찍다!
- 4 취업의 이정표가 되어 준 '청년인턴제도'
- 5 청년인턴, 당신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낼 첫 시작입니다
- 6 네 번의 청년인턴, 좌절감을 자신감으로 바꾸다

인턴 도전으로 뿌린 씨앗, 정규직 합격으로 열매 맺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



작년 여름,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퇴사 바로 다음 날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기남부지사로 출근했습니다. 학생 때부터 공직에 대한 막연한 꿈은 있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니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급하게 사기업 이곳저곳에 지원하여 감사하게도 취업은 했습니다. 끝없는 실적 압박을 견뎌내며 주어진 성과목표는 달성해 나갔지만, 큰 보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고민하며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수년 만에 ‘체험형인턴’ 공고를 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 반대했습니다. 고용기간이 보장된 정규직도 아니고 3개월짜리 인턴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너무 위험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월 20일, 통장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게 될 텐데 과연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이며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는지 모르고 서야 제대로 준비할 수 없겠다는 판단에 인턴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로 칭함)는 새로 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등록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의무가입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각 영업지사 산하에는 ‘임대주택지원팀’이 신설되었는데, 여기에는 매일 수십명의 집주인을 응대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

다. 첫 출근 날 시중은행 영업점의 모습을 방불케 할 만큼 많은 고객이 대기표를 받고 객장에서 대기하는 광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게 된 영업지사에는 저를 포함해 네 명의 인턴사원이 배치되어 보증가입 상담 및 자료정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중심으로 해당 물건에 권리침해 사실은 없는지 부동산 권리분석을 해볼 수 있었고, 보증금과 주택가격을 활용해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았으며, 가입 면제조건에 해당하는지 관 계법령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일을 하면서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항상 고객에게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많은 세입자들의 전 재산과 다름이 없는데, 공사가 보증금 반환을 책임질 수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신을 최소화하여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택시장이 조성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시로 접속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과정으로 「민사집행법」과 경매실무 수업을 수강하며 관련 지식을 보충했습니다.

때로는 인턴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매번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에 찾아 온 고객이 무작정 접수를 받아달라고 억지를 부려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근무했던(지금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선배 직원은 고객의 상황을 들어주면서 최대한 공감하기 위해 노력했고 공사의 근무환경을 설명하며 다음 영업일에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내방객에게 확정일자부계약서 제출을 요청하였더니 고객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면서 지자체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를 포함한 직원 대부분이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해 난감한 기색을 표했습니다. 다행히 팀장님이 나서서 회의실로 자리를 마련해 우리 팀원과 고객이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해당 내용을 구청에 확인하여 고객이 문제없이 보증에 가입하도록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재, 인턴 경험은 직무지식과 고객응대

능력을 키워 주었다는 점에서 저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경험은 정규직 채용과정에서도 상당한 자산으로 활용되었습니다. 3개월의 인턴 근무를 마치고 겨울을 맞이하며 공사의 차기 정규직 채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용공고를 확인했을 때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는 그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이 블라인드와 직무능력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기업 인턴경험은 해당 전형 스토리 메이킹에서 사실상 '유일한' 소재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기술한 에피소드를 포함해 여러 구체적인 상황을 면접관 앞에서 적절히 제시하며 직무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친화력 등에 강점이 있음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입사를 꿈꾸는 주변 친구들에게 청년인턴에 꼭 도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정보와 학교 선후배의 조언으로는 얻을 수 없는 순도 높은 '체험'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체험형 인턴'을 수료했지만 이는 문언상 '채용'과 대비되어 직무를 잠시 경험하는 수준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그러나 인턴 경험은 취업 경쟁에서 여러 스펙 중 하나인 것을 넘어 이제는 정규직 채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서술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공사는 올해 '직무특화형 체험형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인턴 직원을 선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인턴으로 근무하며 공공기관 입사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생생한 직업 현장의 분위기를 몸소 느끼고 업무에 실제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지금 이 수기를 작성하는 시점이 지난해 인턴 근무를 했던 때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이기에 보증 연장을 위해 다시 방문한 고객을 자주 마주하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인데 반가우면서도 뿌듯함을 느낍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실업문제로 골머리를 안고 있는 이때, 많은 공공기관이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인턴 제도 등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기 바랍니다.

난 청년인턴 경험만으로 전문 직렬에 취업했다

(재)우체국물류지원단 | 원ㅇㅇ



🔍 막연한 직무 경험 쌓기

취업준비생 시절, 저는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특정 자격증을 바탕으로 근로자 및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로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경력을 중요시하는 산업안전 직무에서 직접적인 전공자도 아니면서 관련 경력도 없어 수많은 채용전형에서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직무와 관련한 경험을 쌓아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산업현장 이해를 위한 첫 번째 청년인턴

안전관리 직무는 안전관리라는 직무 전문성을 배우기 전에 일선 현장의 작업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먼저 공업을 다루는 조직을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혹은 SOC 분야의 시장형 공기업에서 인턴을 경험해 보자고 결심하였고, 이후 한국전력공사 체험형 청년인턴에 합격하여 전기안전 중심으로 일선 현장 안전관리의 흐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였지만, 직무를 기술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인턴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일선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 실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안전 및 전기공사와 관련된 사무업무를 비롯하여 관련 정책이나 법령을 바탕으로 한 공학적 사무업무를 수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공학적 기술이 접목된 전력 제도 등을 고객에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었고, 기술 문서상의 오류를 찾아내어 수정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 전산 혹은 문서 형태의 공학적 기술을 검토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업무수행 요령과 조직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정보보완과 개인 정보보호 및 청렴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과서적인 직무 전문성을 배운 두 번째 청년인턴

한국전력공사의 청년인턴을 무사히 수료한 저는 이제 안전관리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인턴 등의 채용공고를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하고 체계적이면서 그 어떤 조직보다 전문적인 조직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배워 보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라면 반드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혹은 공정안전보고서 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하면서 일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산업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체험형 청년인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흔히 안전보건공단이라고 불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체험형 인턴에 합격한 후 저는 한 광역본부의 산업안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로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경험과 산업안전기사라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기술자격을 이미 취득한 상태였기에 더욱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하고자 직임

분들을 설득하였고, 직원분들도 제가 일반 인턴들보다 더 많은 ERP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전문적인 업무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이때 배운 경험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선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막론하고 다양한 업종 및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안전 현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패트를 현장점검 업무에서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안전관리가 철저한 것도 아니고, 소기업이라고 하여 안전관리가 형편없다는 편견이 깨지기도 하였으며, 모든 사업장의 의무사항인 위험성 평가를 더욱 독려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인정 업무에서는 이론으로만 접했던 위험성 평가를 직접 현장에서 적용하고 절차를 경험해 볼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법정 제출 대상 사업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및 심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심사자인 안전보건공단이 원하는 기준과 요구사항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고위험 개선사업, 안전혁신 투자사업 등과 같이 일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보조업무 경험은 일선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자들을 응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습니다. 안전보건 법적 기준이나 정책 적용에 있어 현실과 다른 부분을 배울 수 있었으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경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 그 결과, 공공기관 안전관리자로

안전보건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현재 재직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안전 직무 정규직 채용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감사하게도 면접전형까지 도달했지만, 인턴으로 근무하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접전형에서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질문들과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모두 안전보건공단에서 당시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면접관에게 위험성 평가의 원리와 절차를 수월하게 설명해 드렸고, 제가 경험했던 각 사업장의 현황을 천천히 말씀 드렸습니다. 본래 다대다 면접에서는 시간상 질의에 제한이 있었지만, 해당 면접 당시 저에게 더 질문해주시고 답변이 길어져도 집중해 주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종합격을 하게 되었고, 이후 인사담당 직원분께서 말씀하시길 높은 점수로 합격하였다고 전해주시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근무하였던 것 자체가 면접 준비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본격적인 사업장 및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치된 부서에서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처음 채용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선배 직원에게 업무를 배울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국전력공사와 안전보건공단에서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에게 닥친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직무 특성상 법령이 중요한데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요령, 전자문서 형태의 공문서를 기안하는 방법, 예산안을 보고 읽는 방법, 그룹웨어와 ERP를 활용하는 방법, 대외기관에 문의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방법과 주무부처 공무원의 호칭과 같은 사소한 부분에서 시간을 따로 들이지 않고도 빠르게 업무요령을 습득하면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인턴, 더욱 확대해야

저는 두 번의 청년인턴 경험 덕분에 직무 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인재로 입사하였고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취업 준비생들이 관련 업무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인턴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년인턴 경험자는 일선 병원에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병원 원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근무한 청년인턴은 자동차 제조업종 등에서 더 뛰어난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활성화된 청년인턴 제도가 정착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인턴, 길었던 취업 준비에 종지부를 찍다!

국민연금공단 | 이ㅇㅇ



TV 드라마 또는 관광지에서 호텔에서 만나는 호텔리어를 보며 그들과 같은 모습의 ‘나’를 오랫동안 꿈꿔 왔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관련 학과에 지원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꿈꾸던 호텔리어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던 호텔리어의 삶은 1년 만에 접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멋진 모습에 매료되어 직무의 특성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뛰어든 호텔 생활은 적응하기 힘들었고, 3교대 순환근무로 인한 잦은 야근으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안겨 주었고, 무너진 건강 회복에도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 다시 시작된 도전과 거듭된 실패

호텔리어를 제외한 직업을 생각해 본 적 없던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입치고는 적지 않은 나이와 특출나지 않은 학력 그리고 저조했던 학점에 막막함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친구가 공공기관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이·학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혀 생각지 않았던 직종에, 주변에 준비하는 친구들도 없었기에 무엇보다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원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사항만 갖추고

긴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했지만, 성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부한 보람도 없이 서류전형에서조차 거의 매번 탈락했고, 운 좋게 필기시험을 보아도 큰 점수 차이로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제시한, 청년인턴

거듭된 실패로 고민이 깊어지던 시기, 우연히 눈에 띈 것이 ‘국민연금 체험형 인턴’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인턴을 하면 공부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긴다’고 생각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청년인턴에 대한 우대사항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조금이나마 취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운 좋게 합격하여 2021년 3월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단의 조직문화’였습니다. 위계질서가 강했던 호텔에서 근무했던 저에게 직급과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는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유연한 근무환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좌절을 한번 맛보았기에 근무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육아나 출퇴근 거리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와 출퇴근 시 뒷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청년인턴 경험은 저의 장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턴 생활에서 저의 업무는 공단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바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문목적 등을 파악하여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단의 다양한 업무를 공부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 어떤 기관인지, 국민이 공단에 원하는 점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내용에 호텔에서 일했던 서비스 경험을 더하니 고객들은 매우 만족해하고 그 모습을 보며 저 또한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 느낌들은 제가 ‘국민연금공단 입사’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자마자 저는 강력한 지원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의 실패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주위에는 최근 취업에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턴 생활 중 친해진 주임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며 혼자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질문했고 그들의 준비 방법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과 필기시험 문제 유형별 조언,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었던 문제집과 기출문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기업·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만든 온라인 카페 정보와 그곳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기전형이든 면접전형이든 그룹스터디는 필수라는 주임님의 조언을 듣고 들어간 NCS 스터디에서는 기업별 이슈와 채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문제에 대한 스터디 멤버 각자의 다양한 풀이 방법을 공유하면서 문제 푸는 실력도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인턴이 끝난 후에도 소중한 인연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공부 방법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입사 준비를 하던 중, 국민연금 채용 공고가 나와 다시 도움의 손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단의 최신 이슈와 자기소개서 문항에 맞는 소재를 알려 주고 완성본을 검토해 주는 등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도와 주었습니다.

이런 도움 덕분에 무사히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그동안 얻었던 조언들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공부한 덕분에 필기전형까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면접을 위한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각 면접 유형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와 본인들이 받았던 면접 질문과 답변 등에 대한 정보를 아낌없이 나눠 주었습니다. 국민연금 면접전형에서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과 토론은 처음 경험해 보는 유형이었기에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받은 조언을 토대로 열심히 준비하며 연습한 결과, 면접 당일 아쉬움 없이 준비했던 모든 부분을 보여줄 수 있었고 결국 길었던 취업 준비에 최종합격이라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지원했던 국민연금의 체험형 인턴은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이어졌고, 그들을 통해 얻은 조언과 도움은 갈피를 잡지 못해 막막했던 취업 준비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조직문화와 업무가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를 사전에 체험할 좋은 기회가 되었고, 결국 국민연금에 입사하고 싶은 계기가 되어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해 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나이, 학력 등이 객관적으로 우수한 조건은 아니었지만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우대정책, 블라인드 채용, 인턴 생활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로 인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전의 나처럼 거듭된 실패로 자신감이 하락하고 아직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께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에 도전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경험과 소중한 인연으로 저처럼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취업의 이정표가 되어 준 ‘청년인턴제도’

한국언론진흥재단 | 허ㅇㅇ



① 청년인턴에 도전하다

4학년 2학기,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하고 있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은 시기에 취업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을 보며 ‘기자’라는 직업을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직업적 고충을 들으며 다른 방식으로 언론계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공수업을 들으며 언론이 정치나 경제 주체에게 휘둘려 국민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았던 과거의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재단을 알게 된 후 언론을 지원하고 국민의 정보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곳에서 함께 일해 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를 알게 된 후 취업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이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청년인턴은 10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다른 공공기관 청년인턴보다 근로 기간이 긴 편입니다. 과연 청년인턴을 통해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취업 준비 기간 중 약 1년의 시간을 투자할 만한 일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장기간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만을 갖고 ‘여기다!’ 생각하고 올인(All-in)하기 어려웠기에 청년인턴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에 합격하고 인턴 면접을 봤던 날, 생전 처음으로 청심환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외활동을 제외하고는 면접 경험이 전무했기에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히 물어볼 만한 질문인 ‘재단이 하는 구체적인 사업과 자신이 어떤 역량으로 이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면접위원이 천천히 기다려 주시며 우선 재단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편하게 말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신 덕분에 재단이 하고 있는 일을 제 경험 및 역량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었고 무사히 면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면접 후, 간절함이 통했는지 청년인턴 ‘합격’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날, 사무실에 들어가 인사를 할 때 무척 떨렸지만 따뜻한 환영에 마음을 조금씩 풀 수 있었습니다.



② ‘청년인턴’이 준 경험

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리즘지원팀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며 재단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콘퍼런스 진행을 보조하고 기획취재 지원 사업, 언론인 금고 업무 등을 지원했습니다. 팀장님과 선배님들이 하는 업무를 옆에서 도우며 언론이 조금씩이지만 긍정적인 쪽으로 변할 수 있도록 재단이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변화 또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저널리즘 주간 VR 뉴스 체험부스를 운영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시민들과 직접 만나며 재단의 기획취재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진 기후 재앙 VR 뉴스를 알렸습니다. “기후 재앙이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다”, “이런 좋은 보도는 더 알려져야 한다”라는 시민의 반응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널리즘 주간 평가 회의에 팀의 일원으로서 참석해 이듬해 행사를 위해 개선점을 말하는 등 발언 기회를 가졌고, 이것이 반영되었을 때 팀원으로서 재단에 기여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청년인턴에게도 제공되는 교육비 지원 제도였습니다. 월 15만원, 연간 총 60만원까지 지원되는 교육비는 인터넷 강의료, 시험 응시료 등 취준생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만료 기간이 다 되어 가던 토익을 재취득하고 영어 스피킹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근무함에 있어 스스로 부족

하다고 생각했던 경영, 경제와 관련된 직무교육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인턴을 위한 취업컨설팅도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공기업 준비 팁과 자기소개서 작성법, 주니어 사원들과의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자격증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중점적으로 썼는지와 같이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하고 합격자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모의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팀장님들께서 직접 모의면접을 봐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자 많이 긴장되었지만 청년인턴으로 재직하며 느낀 점을 녹여내고 재단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이 제일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 손짓이 많은 편이라는 피드백을 받아 이후 실제 면접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결과에서도 청년인턴 중 최고점을 받아 항상 불안해 했던 면접에 대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재단 실무진의 입장에서 물어볼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③ 신입직원에 도전하다

8개월째 청년인턴으로 일하던 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입직원 공고가 뜬 것을 보았습니다. 취업컨설팅을 위해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를 보완하여 망설임 없이 지원하였고 서류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전형을 준비할 때, NCS 공부에 미흡해 걱정했지만 재단의 필기시험은 NCS와 더불어 직무수행능력 평가와 직무 논술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필기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재단에서 매달 발간하고 있는 『신문과 방송』을 읽으며 최근 미디어 이슈를 파악하고 미디어 수용자 조사, 언론인 조사 등 재단에서 실시한 통계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며 보조했던 다양한 토론회, 콘퍼런스로부터 얻은 지식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필기를 합격한 후 실무면접과 인성면접을 준비하면서도 청년인턴 경험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저의 장점을 접목하여 표현하고자 노력했고 기여하고 싶은 사업, 재단의 비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려 냈습니다. 인성

면접을 준비할 때도 재단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직·간접적으로 느낀 딜레마, 민원인을 대했던 경험을 연상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당일, 약 1년 전 인턴 면접을 봤을 때처럼 같은 약국에서 청심환을 사서 먹고 면접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오후 3시, 합격자 발표가 났다는 문자와 동시에 팀원들의 축하가 저의 합격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최종합격 발표였습니다. 그렇게 2021년 12월 30일 청년인턴을 퇴사하고, 12월 31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입직원으로서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4 '청년인턴'이 준 의미

공공기관 취업을 결심하면서 제일 막막했던 것은 어느 기업을 위주로 준비해야 할지 확신을 갖기 어렵고 막상 들어갔을 때 직무가 저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였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며 이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오는 잘 맞는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전공 공부를 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인턴 9개월의 경험을 통해 훨씬 더 넓은 언론계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저에게 맞는 직무와 제가 업무에 임할 때 갖고 있는 역량 등 스스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인턴제도는 서류, 필기, 면접에서까지 저의 강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무 면접에서 “재단에서 일해 본 결과,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청년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문제점과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거기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고 여러 면접관의 만족스러운 꼬덕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루 9시간씩 공부에 집중할 때 필기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인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관에 대한 애정과 실무 경험, 노력이 모여 합격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위해 해당 기관의 청년인턴만큼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취업에 이점표가 필요하다면, 청년인턴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청년인턴, 당신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낼 첫 시작입니다

기술보증기금 | 이○○



대학교 2학년, 우연히 수강한 경제학개론을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더 깊이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전과를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경제학을 전공했던 다른 동기들보다 늦게 진로를 찾았지만, 더욱 치열하게 공부하며 시장경제 원리를 배우고, 경제학 이론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화폐금융론을 수강하며 통화정책 및 금융산업에 대한 거시적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산업조직론을 통해 기업환경을 둘러싼 시장 구조, 기업의 행태 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공 팀 프로젝트에서 수행한 다방면의 조사와 분석은 사회를 폭넓게 이해하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완전한 경쟁에 의해 작동한다고 가정하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현실을 바라볼 때면 가끔씩 회의감이 들곤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산업 구조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중견·중소기업이 더 나은 환경에서 경영할 수 있는 금융 기반을 조성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3학년 재학 당시 금융에 관심 있는 학부생들과 함께 '미국의 경제금융 교육과 청소년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교내 글로벌 탐방단에 참여했습니다. 시카고 UIC 대학 경제학부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금융 교육기관인 뉴욕 CEE 본사를 방문하여 미국

의 체험형 금융교육의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일인지 절감했습니다. 당시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기에 '내가 꿈꾸는 일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여행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라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산업과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던 경제학도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고 공정한 산업 구조 속에서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꿈꾸던 저의 목표와 한국산업은행이 추진했던 신정책 금융의 목표는 맥락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은행이 기업 생애 주기와 규모에 따라 특색 있는 금융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청년인턴을 통해 한국산업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눌러 담은 자기소개서로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인성 면접과 토론 면접을 거쳐 간절한 노력 끝에 한국산업은행 본점 기업금융2실에서 청년인턴으로 16주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매일 출근 후 기업금융2실에서 관리하는 30여 개 주요 거래처의 공시 사항과 일별 현황, 이슈를 확인한 후 이를 정리한 리포트를 전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신 거래 이후에도 거래처들의 사후적 관리와 동향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소속 팀 주요 거래처의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여 담보로 설정된 물건과 일치하는지, 담보 해지 작업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며 꼼꼼히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계약서 정리, 비품 구매, 마케팅 연장 대상 관리 등 다양한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기업금융이 단순히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래 기업의 현황, 실적 등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노력하는 일임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특히 팀장님께서 하루에 30분씩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

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부동산 PF, 신디케이티드 론 등 다양한 금융 기법에 대해 현직자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고, 질문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금융 제도에 대해 더욱 공부해야 했습니다.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야는 '정책금융'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여러 정책금융기관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비교하며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본 결과 산업은행은 우리나라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부터 창업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하는 기관이었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싶은 제 목표와는 기술보증기금이 더 부합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취업이 어려웠던 시기, 청년인턴 근무 후 타 기업에 합격한 적도 있었지만 꿈을 위해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 원하는 일을 하는 행복감을 느껴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턴을 하며 차곡차곡 모아둔 월급은 10개월가량 취업 준비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덕분에 별도의 아르바이트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온전한 준비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 어떤 활동보다 유익했던 청년인턴 제도를 동생에게 소개해 주었고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게 된 동생을 통해 매일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들으며 기술 평가를 통한 보증 지원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하는 일에 대해 간접함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부단한 노력 끝에 2019년 12월, 꿈에 그리던 기술보증기금에 입사했습니다. 의정부지점과 종로지점에서 새로운 제품 설비 투자를 위해 사업장을 구입하는 중소기업에는 시설 자금보증을,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사업화를 위해 노력 중인 중소기업에는 IP 평가보증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실패 후 다시 도전하려는 대표자에게는 도덕성 심의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완료자 보증을 지원하며 한국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이 더 나은 금융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2021년 3월, 급히 자금이 필요했던 웹소설 및 웹툰 콘텐츠 제작 업체는 적재적소의 금융 지원 후 매출 100억 돌파 및 기업가치 500억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부딪힘과 더불어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더욱 전문성 있는 기술 평가를 제공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고 기술신용평가사 2급을 취득하는 등 꾸준히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 탐방을 많이 하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평생을 일하게 될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십 개의 기업에 원서를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대로 된 경험을 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공공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인턴 제도는 무지의 장막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기업과 자신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창구입니다.

개인적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 본인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단순히 이력서에 추가하는 한 줄의 경력이 아닌, 원하는 분야를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해 미리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 제가 명확한 꿈을 찾고 이루었던 것처럼, 저 역시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애정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 당신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낼 첫 시작입니다.

네 번의 청년인턴, 좌절감을 자신감으로 바꾸다

서민금융진흥원 | 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 대리라고 합니다. 지금도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청년들을 위해,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하고 있을 청년들을 위해 저의 이야기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자영업

저는 대학졸업 후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 주변 친구들은 취업준비를 위해 영어, 자격증 등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가게에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을 응대하며 매장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일 쉬는 날 없이 일하며 몸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업종의 특성상 계절에 따른 매출의 변동이 너무 오락가락했고, 돈으로부터 생기는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견디기 매우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년간 운영했던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고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폐업 후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막막하고 걱정이 너무 많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1년을 보냈습니다. 종종 대기업에 원서를 써 보긴 했지만, 번번이 서류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 새로운 목표: 공공기관 입사

여러 번의 대기업 서류 탈락은 제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재직질과도 같았습니다. 학점, 나이, 경력, 자격증 등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각종 취업과 관련된 커뮤니티를 찾아보던 도중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전형으로 인재를 채용하기 때문에 스펙, 나이 등을 전혀 보지 않고 직무적합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가 전공했던 경영학과 관련된 직무를 채용하는 공공기관에 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 매우 다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인턴 경력 등의 부족함을 몸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격증은 나름 계획을 세워 단기간 안에 취득할 수 있었지만, 사장님 소리를 듣던 제가 청년인턴에 지원을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에겐 가장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현실을 최대한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 첫 번째 청년인턴: 한국전력기술 청년인턴

저는 친구들의 조언대로 공공기관 청년인턴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처음으로 청년인턴 서류전형을 통과한 곳이 한국전력기술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격증은 컴활 1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한국사 1급이었고, 어학점수는 토익 920점, 오픽 IH였습니다. 면접전형은 당시 유행했던 AI 면접이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던 AI 면접 준비 책을 바로 구매하여 집에서 연습했고,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심하여 마침내 첫 청년인턴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인턴 동기들 중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어울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앞섰지만, '공공기관 입사'라는 목표를 함께 가지고 생활을 하니 공감대도

많이 형성할 수 있었고, 개개인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동기들이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각자 배치받은 부서에서 사무직 경험을 쌓고, 퇴근 후에는 함께 스터디 카페에 모여 NCS 봉투 모의고사를 풀거나 전공 공부를 하며 공부방법과 각자의 노하우도 공유했습니다.

6개월간 국내 건설사업 그룹 사무직 인턴으로서 부서의 회계경비처리 업무와 원자로 건물 설계도면 취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공기관의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고, 사무, 경영, 회계 등 직무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 두 번째 청년인턴: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6개월간의 김천 생활을 마치고 자신감이 생긴 저는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청년인턴 공고를 찾아 보았습니다. 운이 좋게 행정안전부와 NIA에서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공고를 찾을 수 있었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해당 경험을 통해 데이터 분석 역량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다면 추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기도청 소속 인턴으로서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10년 이상 축적된 미혼모 상담 관련 비정형데이터를 정형화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데이터와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무료로 들을 수 있었던 점과, 교육을 듣는 동시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대부분이었지만 팀원들과 긴밀히 협업하여 해당 데이터 구축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업능력과 데이터 분석 역량,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 세 번째 청년인턴: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인턴

두 번의 청년인턴 수료 이후에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서류전형은 대부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 대졸 공채전형은 서류전형의 배수가 작아 통과하기 쉽지

가 않지만, 두 번의 인턴 경력과 그동안 취득한 자격증 중 인정되는 자격증이 많아 가산 점을 많이 받을 수 있어 다행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NCS와 경영학, 회계학, 재무관리 등의 전공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여 필기전형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PT면접을 처음 준비해 보는 과정에서 잦은 실수로 인해 1차 면접전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공채를 노려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대규모 상반기 공채에서도 합격하지 못한 내가 소규모 하반기 공채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고,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인턴에 지원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청년인턴 서류전형과 비대면 면접전형을 통과하여 결국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컨설팅부에서 세 번째 인턴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서배치를 받고 나서 저는 직원분들에게 이번 면접전형에서 탈락했지만, 인턴 경력을 쌓아 내년에 신입직원으로 입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행히 직원분들께서는 저의 간절함을 좋게 봐주셨고, 많은 업무 수행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했던 경험을 살려 자영업컨설팅팀에서 진행하는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 컨설턴트분들과 소통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고, 취업지원팀에서 진행하는 미취업청년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여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청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있을 서민금융진흥원 공채 전형을 위해 고객컨설팅부에서 수행한 업무를 날짜별, 수치별로 정량화하여 지속적으로 메모하고 다듬었습니다.

네 번째 청년인턴: 한국산업은행 청년인턴

서민금융진흥원의 많은 선배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금융과 관련된 업무 수행경험이 입사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조언을 듣고, 은행의 수신 및 여신 업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한국산업은행 청년인턴에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의 인턴 경력과 그동안 같고 닦아 온 자기소개서 작성 노하우는 서류전형 통과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토론면접은 기출 주제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통해 어떠한 반론을 들어도 나의 논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직무면접에서는 대부분 이전 회사에서 인턴으로 수행했던 업무 위주의 질문이 들어와 답변하기 매우 수월했습니다. 확실히 타 지원자들에 비해 많은 인턴 경험이 있던 것이 합격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점 내 기업금융팀에 배치받아 팀 내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분석하고 기업과 관련된 동향 조사 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또한 국책은행으로서 공익을 위해 하는 업무와 은행 내부의 수익 확보를 위해 하는 업무 두 가지를 동시에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선배님들께 틈틈이 PT면접의 노하우와 논술작성 공부방법 등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여쭙보고 메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입사

한국산업은행 청년인턴 수료를 하고 나니 2022년 서민금융진흥원 대졸 공채전형 공고가 떴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청년인턴 수료 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고 신입 지원자가 많은 가운데 풍부한 인턴 경력으로 직무 관련 경험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인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리했던 저만의 정량화했던 자료와 스크랩했던 서민금융 관련 기사, 기고문 등을 읽어 보면서 메모했던 점들은 특별히 면접 스테디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만의 강력한 무기이자 필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차 PT면접까지 통과할 수 있었고, 마지막 최종면접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2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 왔던 진심이 통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면서도 저만이 얘기할 수 있는 청년인턴 업무 경험을 곁들여 답변했습니다.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결국 2년 만에 공공기관 최종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대에 사장님이었던 제가 30대에 청년인턴으로서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고, 필기시험에서,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의 좌절감은 그 당시 정말 견뎌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네 번의 청년인턴 수료는 제가 느꼈던 좌절감을 조금씩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최종합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체험형 청년인턴, 일경험프로그램 인턴, 단기 계약직 등 청년들이 직무 관련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정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현재 진로를 정함에 있어 방황하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러한 직무 관련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하루 빨리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예상보다 이른 순간에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ular shap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II

고졸 채용



- 1 19살, 너도 취업할 수 있어!
- 2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얻은 '합격'의 결과
- 3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
- 4 나는 바다로 출근합니다
- 5 302등의 성적, 변하기 위한 노력과 마음가짐
- 6 걸림돌을 디딤돌로

19살, 너도 취업할 수 있어!

한국주택금융공사 | 김○○



1. 중3, 인생을 바꾼 한마디 “선취업 후진학”

여러분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을 때는 언제인가요?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불리는 시기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겪어보셨나요? 저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외부에서 온 특성화고 전문 강사님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취업 후진학”, 그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취업 후진학은 경제나 금융, 회계 등 관심 있는 분야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여 관련 분야에 취업한 뒤, 재직자 전형을 통해 대학교로 후진학하여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너희가 대학교를 졸업했을 땐 경력 7년차에 대학교 졸업장도 있는 거야.” 강사님이 해 주신 이 한마디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무조건 대학교를 가야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저에게 선택지가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유별나게 잘해서 자신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대학교로 진학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부모님에게도 계속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특성화고를 선택하여 17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취업준비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 고1, 처음으로 마주한 위기

2020년 고대하던 고등학교 입학식이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인해 5월까지 미뤄졌습니다. 첫 등교를 5월에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 당황스러웠지만 계속되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많은 여유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제가 좋아하는 말들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격증 시험들은 매번 취소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 만큼 여유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남들과는 다르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내가 어떠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 분야와 관련된 직종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을 길러야 하는지 등 진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더해서 코로나19가 사그라들 내년 즈음에는 교내외 어떠한 대회와 활동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대회 및 활동에 참가해 볼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2학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고2, 본격적인 시작! 근데 NCS가 뭐야?

고등학교 2학년이 시작되자마자 1학년 때 세운 계획들을 바탕으로 각종 자격증들을 취득해 나가며 1학년 때 부진했던 역량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세무, 증권·펀드투자권유대행인, CS리더스관리사 등 총 16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며 전문성을 기를 수 있었고 교내에서는 기능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역량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을 넓히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교내에서는 ‘나는 펀드매니저’, 경제신문 만들기 등의 경제체험 활동들과 취업 프레젠테이션, 포트폴리오 대회 등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교외에서는 한국은행의 화폐사랑 UCC 공모전이나 한국경제신문사 주관 경제체험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도 즐겼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 공기업'으로 진로방향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금융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탐색해보았고, NCS 필기시험을 치른다는 점이 다른 기업들의 채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본격적으로 NCS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모듈형·피셋형·피돌형 등 세부적으로 나뉜다는 것도, 수리·의사소통·문제해결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꾸려 방학 동안 학교에 나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가량 공부했습니다. 영역이 많다 보니 가장 중심이 되는 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 영역을 위주로 서로가 맡은 부분을 설명해 주고, 다른 부분은 설명을 듣고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빠르게 진도를 나갔습니다.

학기 중에는 등하교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 여유 시간이 날 때마다 기업별 봉투모의고사를 풀며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하여 몇몇 금융공기업에서는 경제경영 금융상식을 필기시험으로 보는 곳도 종종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 뉴스레터를 구독해 시사상식과 국내외 경제흐름을 지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상식책을 통해 꾸준히 공부하며 매경TEST나 테셋같은 경제·경영 이해력 테스트를 준비해 실력을 점검했습니다.

내신, 자격증, 교내외 활동 등 다양한 면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한 덕분에 자연스럽게 2학년 학기말 학년별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학생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들이 인정받은 기분이 들었고, 진짜 취업을 하게 될 내년의 기분 좋은 첫걸음이 된 것 같았습니다.

4. 고3, 노력으로 만들어 낸 결과

“축하드립니다! 2022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2차 면접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최종합격했을 때의 문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1등 한 번 못 해 봤기에 수도권에서 한명 뽑는 주택금융공사에 최종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각 전형을 준비하면서 다른 학교의 쟁쟁한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비교하고 많이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월등하다 해서 내가 결코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그동안의 노력들을 쏟아부어 준비하니 좋은 결과로 보답받은 것 같습니다.

5. 끝나지 않은 목표

19살의 제 목표는 금융공기업에 입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 3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했고, 현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입사하여 6주간의 연수를 마쳐 서울중부지사에 배정받아 선배님들에게 차근차근 일을 배우며 업무 관련 규정을 습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0살의 제 목표는 꾸준한 자기계발과 함께 후진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직 배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실제 업무를 배워 보니 공부하고 싶은 새로운 분야도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재직 3년 뒤 재직자 전형으로 후진학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기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예정입니다.

6. 이 글을 읽게 될 모든 19살 취준생들에게

최근에는 “내신을 좀 더 잘 챙겨볼걸”, “자격증 더 취득할 걸”, “다양한 경험을 쌓아볼 걸” 같은 후회들을 종종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최선과 지금의 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쉽지만 그때도 충분히 노력한 덕분에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졸 취업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없어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오지 않을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며 의미 있게 보내신다면 꼭 좋은 결과로 보답받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고졸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얻은 ‘합격’의 결과

한국중부발전 | 고○○



1. 들어가며

중앙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고등학교 재학 중 상위 1% 학생들이 나아갈 수 있는 최상의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중학교 재학 시절 전교 400명 중 300등 정도의 하위권에 위치했던 학생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에너지 공기업, 한국중부발전 화학직으로 재직 중인 3년차 직장인 고○○ 주임입니다. 현재는 한국중부발전의 최신 친환경 발전소인 신서천발전본부 발전운영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직무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발전소는 스팀(수증기)을 통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때 스팀 생산에 필요한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필터 설비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제 철없었던 16살 중학교 3학년의 학생이 대체 어떻게 잡플래닛 기준 ‘2022년 상반기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1위’인 한국중부발전에 입사할 수 있었는지, 그 내막을 가감 없이 밝혀보고자 합니다.

지루함 없이 간결하게 핵심만 담아 여러 고등학교 취준생분들의 취업 준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읽는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저만의 취업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 인생을 바꾼, 철없었던 16살 학생의 선택

중학교 3학년까지는 종례를 마치면 곧바로 동네 오락실로 친구들과 달려갈 정도로 저는 게임에 푹 빠져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게임이라는 분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학생의 본분인 공부는 뒷전이었고, 성적표가 나오기 전의 꼬리표는 제게 두려움과 스트레스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존감과 자부심이 강한 제가 시험마다 400명 정도의 전교생 중 항상 300등 중후반의 하위권 성적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자존감과 자부심 그리고 강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었지만 별다른 학습 열의가 없었고, 저는 그저 제 낮은 성적을 부정하기만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인문계의 야간자율학습이 하기 싫어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원서를 접수했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택했습니다.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택한 이유는 별다른 ‘꿈’이 있어서도, ‘목표’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이 제 인생의 판도를 바꿔 버렸습니다. 고등학교 에너지환경과 진학 후 하나씩 취득했던 국가기술자격이 제 적성에 완벽히 들어맞았고, 인문계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험 범위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집중적으로 공부해 학과 1등이라는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더 이상 노력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총 네 번의 시험에서 모두 학과 1등이라는 성적을 성취해 낸 저는 좋아했던 게임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학과 공부와 대외활동 하나에만 몰입했습니다. 공기업 입사의 첫 단계인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경험을 확보하고자 시험 기간이 아닐 때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최하는 ‘기후변화토론대회’나 환경부에서 추진했던 ‘자원

순환관리대회' 등 다양한 대외활동에 참여했고, 학과 시험기간이나 자격증 시험기간이 도래하면, 최소 하루 10시간 이상 학업에만 집중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대외활동과 학업, 자격증 준비까지 모든 활동을 병행해야 했기에 주위 친구들보다 많은 시간을 공부에만 할애해야 했습니다. 놀지도 못하고 가끔은 지치기도 했지만, 3년의 시간을 투자해 20대의 희망찬 미래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도전을 거듭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당시보다 더 노력하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할 정도이니, 정말 이보다 더 노력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2년간 꾸준히 노력한 끝에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재학했던 에너지환경과의 필수 취득 자격증인 '환경기능사'부터 '위험물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전기기능사' 자격을 포함한 총 10개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 성공했고, 총 내신 1.3등급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취업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4. 서류전형 All Pass, 그러나?

주위 선생님들께서 제가 가진 스펙이 오버스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타인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오버스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바와 같이 '한국조폐공사'부터 '지역난방공사', '국가철도공단', '삼성전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을 포함해 지원하는 모든 기업들의 서류는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 배수와 내신 반영 여부 상관없이 모든 서류 전형에 합격하는 경험을 통해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과 2년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의 경우 '서류전형→필기전형→1차면접→2차면접'으로 채용 프로세스가 전개되었는데, 필기전형에 필요한 NCS와 전공지식이 타 지원자분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NCS 시험을 준비했지만, 첫 채용공고가 나왔던 2019년 3월에 응시한 한국조폐공사 필기시험에는 41점으로 불합격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항상 만점을 받아 왔던 제게 41점이라는 낮은 점수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저는 저만의 학습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당시 취업이 목표였고, 입사 후 업무는 새로 배우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 전공인 환경과 화학의 비중은 최소로 가져가고, 모든 시험에 통용되는 ‘NCS’ 하나에 90% 이상의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의사소통능력’부터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다양한 세부 과목을 완벽히 풀이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NCS 서적을 풀며 오답을 정리했습니다.

1권, 2권 그리고 40권까지 점차적으로 NCS 서적은 쌓여 갔고, 한 권씩 풀어 나갈 때마다 NCS 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2019년 5월, 삼성전자 GSAT를 처음으로 패스하여 인생 첫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면접관이 제게 했던 질문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에 지원해 반도체 8대 공정과 같은 간단한 부분을 질문하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세심한 부분을 파고 들어 완벽한 답변을 구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면접관들의 눈빛을 보니 삼성전자에 비전이 있어서가 아닌, 막연하게 지원했다는 사실에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때 스스로 기업에 지원하는 태도에 대해 반성했고, 지원하는 기업의 직무에 대한 전공지식만큼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갖춰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건한 마음으로 전국 방방곡곡 NCS 시험을 응시하러 다녔고, 한국임업진흥원 필기 합격을 시작으로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까지 대한민국 중앙 발전사 필기 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약 40권의 NCS 서적을 공부하고,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을 구축해 봉투모의고사(NCS 시험지)를 반복적으로 풀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저는 삼성전자 면접 당시 느꼈던 경각심을 바탕으로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 등의 사업을 철저하게 조사했고, 해당 기업에 입사 후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포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면접 예상 리스트를 뽑아 키워드별로 암기하고, 지역 면접 스터디를 통해 전반적인 토론 면접을 대비했습니다. 이렇게 필기 시험 합격 후 주어진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면접에 몰두했고, 결과적으로 2019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 ‘최종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5. 오늘도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멋진 취업준비생 여러분들께!

3년간 학업과 대외활동, 자격증 취득을 병행하며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취업이라는 과정이 면접까지 줄곧 합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에, 끝나지 않는 레이스와도 같게 느꼈습니다.

현재 목표하는 기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또한 당시의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의 제게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고민해서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면, 후회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다면 일말의 후회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한다면, 저는 더욱 치열해지는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해당 기업에 입사가 간절한 만큼 면접에서 면접관님들께 그 모습이 진실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최종면접의 합·불을 결정짓는 중요한 판단지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학교 시절 약 상위 70%에 위치했던 저도 현재 한국중부발전이라는 대한민국 중앙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사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현재 과거를 돌아보면 당시의 제가 대견합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멋진 취업준비생 여러분들도 본인의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 본인이 대견하다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삶에 있어서 성공은 존재하지만,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해 거쳐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목표하시는 기업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이 되는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의 새로운 주역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

한국조폐공사 | 장○○



안녕하세요, 한국조폐공사 ID본부에서 부 서무업무와 견본 담당을 맡고 있는 장현준입니다. 고졸 신분으로 한국조폐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나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 왔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 기회를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시는 취업준비생분들이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아 궁금한 것은 꼭 알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물건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고장난 CD플레이어를 분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도 인문과목 공부보다는 과학이나 기술·가정 등 물건을 제작하고 실험하는 과목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통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란,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산업계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전기·전자 분야를 공부하고 싶었던 저는 부모님과 선생님 등 여러

어른들의 상담을 통해 인문계 진학을 포기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업 후에도 야간대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선택에 영향을 크게 주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미리 배우게 될 과목을 조사하였습니다. 처음 접하는 전공과목보다는 인문과목을 대비하기로 결정하였고, 수학과 영어 학원을 인생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공부하다 학원을 다니니 조금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고등학교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 후 1학년 때는 기능사나 다른 스펙들을 쌓기보다는 학교생활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내신 공부에 가장 집중하였습니다. 인문과목 공부를 미리 해 놓으니 처음 접하는 전공과목에 투자하는 공부시간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내신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주변 친구들의 공부를 도와주면서 저의 실력 또한 키워 나갔습니다.

2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취업경쟁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전기기능사 등 여러 전공 관련 기능사를 준비하며 취득에 도전했고, 토익 등 어학점수 향상을 목표로도 도전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으로 저의 스펙을 쌓았습니다. 또한 저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교내 전공발표대회 등 여러 대회, 프로젝트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정을 통해 1년 동안 두 개의 기능사와 토익 점수 740점, 교내 창의능력경진대회 수상 등 또래 친구들과 사이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실때 후 심기일전

공공기관 입사가 목표였기에 2학년이 되고 나서 꾸준히 필기전형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전공과 NCS 등 필기전형을 공부했습니다. 매일 서로의 진도를 점검하고, 한 권을 끝내면 교재를 서로 바꾸며 공부했습니다. 혼자보단 같이 공부하니 좀 더 공부하기 수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2학년 2학기 때 공공기관 특별채용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필기전형을 대비해서 공공기관 맞춤 모의고사를 푸는 등 많은 준비를 통해 필기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면접전형에서 탈락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말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고, 나름 준비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면접 준비 중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깨달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면접 당시의 상황과 질의응답을 복기하며 보완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잘한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정리해 보며 차근 차근 보완해 나갔습니다.

3학년이 된 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조금 더 노력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통하여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기능사 두 개를 추가로 취득하며 전공 역량을 키웠습니다. 또한 스터디그룹 내에서 면접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성면접 질문,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 등을 만들어 모의면접을 진행하였고, 친구들과 서로 피드백을 해 주며 면접전형을 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학교 선배들과 선생님들의 조언을 듣고 반복하여 연습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답변의 내용이나 면접 자세 등이 발전하는 것을 체감하니 더 열심히 연습한 것 같습니다.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지만 공공기관 채용이 줄어들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도전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조폐공사라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고졸(졸업예정자 포함)채용 전형이었기에 필기전형은 조금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지원한 공공기관 필기전형에서 대졸자분들과 경쟁하여 합격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필기전형에 응시하였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채용 일정 중 필기전형 합격 발표일과 면접전형 진행일 사이의 기간이 매우 짧았기에 미리 면접전형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를 자주 들여다보고, 공사 관련 뉴스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정리하며 공사의 주요 사업들을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경험들을 정리하며 답변을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연습이 면접전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에 임했을 때 솔직한 저의 생각과 공부했던 내용을 같이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조폐공사 입사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준비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막 넘어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앞으로 배울 것이 더 많이 남은 만큼 꾸준히, 열심히 배우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우선 야간대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며 자신을 성장시켜 앞으로의 인생에 다가올 기회를 잡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스스로를 갈고 닦는 취업준비생들이 꼭 다가올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 여행을 시작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4대 보험 공공기관 인턴을 하며 고객으로부터 받는 감사 인사를 통해 일의 보람,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적성을 알게 되었고, 졸업 후 관련 공공기관 위주로 취업준비를 하게 되었다. 같은 상황인 친구들과 모여 매일 도서관과 스터디 카페를 다니며 NCS 계획을 세우고, 면접 준비를 도와주었다. 이후 친구들은 하나 둘씩 취업하며 떠나게 되었고, 나는 서류와 NCS 불합격, 최종면접 탈락을 겪으며 하루하루 조급하고 불안한 20대 초를 보내 왔다. 근로복지공단을 다니던 고등학교 친구는 우연히 내게 본인 회사에 계약직 공고가 올라 왔다면 지원해 보지 않겠냐고 권유하였고, 나는 '한번 지원해서 경력을 쌓을까?'라고 생각하여 지원한 결과 계약직에 최종합격하였다. 친구의 권유를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게 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 오아시스를 만나다

근로복지공단 계약직을 통해 체험형 인턴 경험과는 다르게 더 깊은 사회조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조직문화, 직장동료와 상사, 업무 절차 등 근로복지공단을 알아가게 되었고, 취업준비만 하며 불안하고 힘들었던 전과 달리 근로복지공단 업무는 나에게 잠시나마 소속감을 주었고, 업무를 하며 내가 조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이는 마치 힘든 사막 여행 중에 만난 반가운 오아시스 같았다. 하지만 이런 고마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안일하게 만들었고, 계속 오아시스에 머무르고 싶은 욕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순간의 행복으로 인해 간절하지 않은 나와 끝이 정해진 기간을 망각하던 중, 계약 만료를 겪으며 취업 앞에 나태했음을 깨달았고 자신에게 실망하였다. 이로 인해 계약직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취업준비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 나의 바다를 찾아서

어느덧 취업준비 기간이 4년차가 되었을 때, 나는 슬럼프를 겪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며 점점 불안해졌고, 혼자만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한 외로움과 자괴감이 나를

뒀었다. 내 삶을 부정하고 집에만 숨어 있던 적도 많았으며 주변 친구, 지인들을 만나기가 부끄러웠다. 부모님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괴로움으로 애꿎은 부모님과 할머니께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흔들리는 마음에 마리모라는 반려식물을 구매하여 소원을 이뤄주길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였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는 나에게 가수 에일리가 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서 일합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앞서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놀리지도 맙시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대에 있을 뿐이고, 당신도 당신의 시간대에 있는 것뿐입니다. 인생은 행동하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긴장을 푸세요.”라는 명언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이 명언을 본 나는 한 방 먹은 느낌이었다. 남들과 비교하던 모습이 부끄러웠고, 나를 믿지 않은 자신에게 미안하였다. 명언을 동기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용기가 생겼다. 작은 오아시스가 아닌 넓고 큰 바다를 찾아, 오아시스를 바다로 만들겠다는 큰 포부와 함께.

6년의 여행, 취업 그 이후

슬럼프를 딛고 용기가 생기니, 제일 먼저 부모님과 할머니가 떠올랐다. 내 선택을 존중해 주신 부모님과 그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할머니께 많이 죄송하였고,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자 다시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다. 퇴근 후 NCS 공부를 하였고, 스펙을 위한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24시간이 부족하도록 준비하니 자신감도 생겼고, 과거 면접에서 항상 위축되어 있던 나는 면접이 긴장되고 어려운 자리가 아닌 열심히 준비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 긴장은 설렘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최종합격을 하게 되었고 발표일 날은 놀랍게도 물 위로 뜨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마리모가 처음으로 뜬 날이었다. 나의 취업준비 기간 6년의 마침표를 마리모가 나에게 바다로 인도해 준 게 아닐까?

취업 후 나는 운이 좋게도 고등학교 친구와 같은 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현재 입사 1년차, 친구의 옆자리에 앉아 업무를 배우고 있다. 나에게 자소서 첨삭, NCS 조언, 면접까지 직접 발 벗고 도와주었던 친구를 만나 항상 고마운 마음이다. 또한 내 업무를 본인

업무처럼 챙겨 주고 신경 써주며 칭찬해 주시는 좋은 상사분들과 서로 협력하며 도와주는 직장동료들 덕분에 지금까지 학력차별 없는 조직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 또한 앞으로 평등하고 차별 없는 조직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고졸 입사 선배들이 그려 놓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키고 싶다는 사명감이 생긴다. 항상 나는 '적어도 1인분은 하자!'라는 나만의 다짐이 있다.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에 업무 시간 외에는 법령과 업무규정에 대해 공부하고, 기본 이론을 최대한 습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방문 고객 친절 상담을 통해 고객의 칭찬 카드를 받았으며, 전화 모니터링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회사 내 공모전에서는 참가상을 받으며 하루하루 보람찬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주변 고졸 채용 선배님들과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후진학에 대한 조언은 현실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친구들은 대학 진학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고려해 보라고 조언을 한다. 하지만 긴 취업기간을 겪고, 배울 기회가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알기에 도전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올해 수시를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대학교 새내기가 된다.

마지막으로 6년 동안 취업준비를 하며 느낀 점은 나보다 더 대단하고 좋은 고졸 후배들, 인재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더 다양하고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오기를, 고졸 채용 인원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취업이 빠르고 느리고는 중요하지 않다. 각자 본인에게는 맞는 시간대가 있고 기회가 있다. 그러니 고졸 채용을 준비하며, 조급해 하지 말고 본인 페이스대로 나아가면 분명 어느 순간 자신의 바다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실제로 겪었기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해 주고 싶었다. 이 세상에서 적어도 나는 당신들을 믿고 항상 응원하고 있겠다.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일 테니 각자의 멋진 바다를 찾길 바라며, 나는 오늘도 바다로 출근한다.

302등의 성적, 변하기 위한 노력과 마음가짐

한국중부발전 | 권〇〇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본인이 구체적인 취업 계획을 세워 입학한 학생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공부가 싫어, 공부에 재능이 없어, 일찍 취업이나 해서 돈 벌어야지, 친한 친구가 가니까, 내 성적에 맞는 학교니까.’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입학한 학생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기를 작성 중인 저는 중학생이었을 당시 317명 중 302등이라는 하위권 성적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철없이 친구들과 놀기만을 좋아하여 늘 귀가 시간이 늦던 비행소년이었습니다.

철없던 소년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 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에 입사하기까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저의 경험이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나아가 삶의 원동력이 부족하여 방황 중인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며 도움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특별하지 않았던 비행소년

먼저, 간단하게 제 학창 시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 남매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에 유복하지 못한 가정환경,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똑똑하다'라는 칭찬, 재능과 환경 모든 것이 평범한 축에 속했습니다. 더군다나 사춘기와 반항심에 방황했던 시절로 인해 원하는 목표를 가지기엔 남들보다 늦은 출발이었습니다.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은 단순한 계기였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첫 시험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새로이 배우는 전기·전자 전공과목이 존재했었고, 이 과목에서 60점이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20점대의 성적을 받던 저는 점수를 보고 '공부'가 아닌 단순 수치로 증명되는 '성적'에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심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열정이 생기며 향상된 결과를 얻었을 때의 성취감이 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별해지는 방법? 익숙한 단어, '노력'

연필을 잡는 방법도 몰랐던 제가 달라진 모습을 봐 온 지인들은 저의 학창 시절 스토리가 재밌기에 영화처럼 표현하며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 학창 시절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꿈이 뭐니?'라는 질문에 머리가 멍해지고 반성하며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한순간에 꿈을 이루어내는 판타지가 아닙니다. 꿈이라는 말은 추상적으로만 와닿았기에 제 원동력이 되지 못했고, 꿈이 뭐냐는 질문에는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는걸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인지하지만 극복하는 것이 아닌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극복하는 것은 힘들지만 무시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저는 재능이 뛰어나거나 특출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지 단계에서 실행으로 발전시켰을 뿐입니다. 성공적인 취업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의 입사 수기를 보면 '남들보다 두 배는 노력했다'라는 구절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말이기엔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로 와닿기는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의 단점과 역량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노력을 시작하기가 어렵다면 본인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인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변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열등감이 생겨서라도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저도 말씀 드렸드시피

큰 동기부여가 없었습니다. 성적에 대한 욕심부터 시작해서 ‘재보단 잘해야지’라는 열등감, ‘1등하고 싶다’라는 성취욕, ‘상 받아서 어머니께 자랑해야지’라는 기대감 등 하찮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나태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 보니 결과적으로 각종 자격증과 교내 우수상,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졸업하여 성공적인 취업이라 볼릴 수 있는 공공기관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학교와 달라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이라는 짐을 메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뒤를 돌아봤을 때 목표를 달성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저와 같은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고졸 취업? 이것은 기회!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등 고졸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학생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 고졸 취업이라는 기회의 길로 들어오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졸 취업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찍 취업해서 돈을 빨리 버는 것? 대학 등록금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 대부분 돈과 관련된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본인이 바라는 기업에 성공적인 취업을 하였을 때의 이야기이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낮은 경쟁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졸 제한경쟁의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수많은 기업과 직렬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2021년 하반기 한국○○공사의 사무(고졸) 직렬 경쟁률이 32:1이었습니다. 높은 수치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연도, 같은 기업의 사무(대졸) 직렬 경쟁률은 어떨까요? 347: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고졸 제한경쟁의 경쟁률이 낮은 수치로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이 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한다면 저어마어마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특별채용 전형을 알고 계시나요? 이는 졸업생을 제외한 졸업이 예정된 고등학교 3학년 신분만 지원할 수 있는 경쟁입니다. 당연히 일반 고졸

채용보다 경쟁률이 현저히 낮을 것이고, 고졸 취업의 길을 선택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단 한 번 지원 자격을 얻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 준비된 인재들에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취업을 목표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이 수기를 찾아 읽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보다 준비된 인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취업을 준비할 때 취업자들의 수기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더라도 일시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소할지라도 늘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며 이 수기를 읽기까지 성장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도 자기계발을 수행하고 있을 모든 이들에게 동기부여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



“네가 근무하기에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는 없을 텐데…?”

5년간 근무했던 직장을 퇴사하면서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저를 걱정해서 했던 말이었겠지만 당시 저에게는 쓸쓸했던 말이었습니다. 주변의 우려에도 ‘고졸’이라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딛고 일어난 제 이야기가 주변의 의식 때문에 꿈이 있음에도 망설이는, 또는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여러분과 같았던 저의 진학부터 입사까지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성적 미달 학생의 학급 2등 되는 방법

저는 학업보다는 취업을 우선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에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입학 후, 생활기록부 내용이 많으면 취업이 유리해진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봤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학급 실장 선거에서 반 친구들을 이끄는 실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급 성적이 높은 학생만 출마할 수 있다는 규칙에 따라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고 실패를 맛보았고, 다음 해에는 꼭 자격을 갖춰 실장이 되리라 다짐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방과 후 자격증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늦은 시간이라도 항상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등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학급 2등으로 진급하였고,

실장 선거에 출마해 당당하게 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졸업까지도 그 성적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취업 시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산회계운용사 3급, 기타 IT 자격증도 함께 공부해 취득했습니다. 단순히 취업만이 목표였던 제가 학업 증진과 임원이 될 수 있었던 성공의 과정을 통해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목표를 위해 퇴사하겠습니다

우수한 성적, 학급 또래와 비슷하게 취득한 자격증으로 고등학교 졸업 전 공기업에 원서를 썼지만, 서류전형의 문턱을 넘지도 못한 채 좌절을 겪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처음 겪어 본 실패에 저는 목표하였던 공기업 취업을 접고, 고등학교를 졸업해 사기업 사무직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목표했던 직장은 아니었지만 배울 점은 어느 곳이든 있었습니다. 영업부에서의 고객 응대 경험은 현재 민원 응대에 도움이 되었으며, 재고 관리 업무는 문서작성능력에 도움이 되는 등 경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경력은 공공기관 한정이지 아니라 사기업, 아르바이트 등 모든 곳에서 얻을 수 있으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 문득 접어 두었던 꿈에 다시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한 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고, 당시 부족했던 점을 하나씩 채워가기로 했습니다. 자격증을 보완하기 위해 퇴근 후에는 컴퓨터 학원으로 다시 출근해 컴퓨터활용능력 1급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또한 재직 중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로 했던 자격증 취득을 마친 후 저는 더 많은 경력을 쌓기 위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서는 가족을 포함해 회사 동료까지 모두 저를 말렸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늦었다는 말과 좁은 합격 문턱에 제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목표한 바를 이루겠다는 생각 하나만을 마음에 새기며 5년간 근무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공기업 인턴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맛보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합격할 수 있었고, 저는 또 하나의 경험과 경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모집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을 때도 퇴근 후에는 NCS 공부를 틈틈이 했었습니다. 경력과 자격증을 갖춘 뒤라 그런지 처음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고, 서류전형 합격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제가 합격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미리 필기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필기와 면접은 정말 눈만 뜨고 있다면 공부하고, 준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합격하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시험 때는 전날 먼저 응시 지역에 도착해 긴장에 잠을 설쳐가며 새벽까지 자기소개를 줄줄 읊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 노력과 간절함을 알아주었는지 저는 꿈꿔 왔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고졸전형'에 필요한 정보

제 주변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한 직장인들로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보가 많이 부족했고, 같은 목표를 가진 분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NCS 풀이법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터디원들이 알려주는 정보 중에는 먼저 준비를 했던 선배 재직자로부터 들은 조언 또한 많았습니다. 고졸 전형은 일반적으로 채용인원이 적습니다. 주변에 재직 중인 선배들 또한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종학력이 같은 고졸인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졸전형 취업멘토링' 제도를 제안합니다. 전형별로 준비해야 하는 NCS 과목과 우대사항이 다른 만큼 같은 전형을 준비한 사람이 조언해 준다면 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입직원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우리 회사에서 최종학력으로 느낀 차별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발전으로 이루었던 만큼 저는 계속 나아가고 싶습니다. 추후에는 ‘선취업 후진학’을 통해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여 제게 부족한 부분과 채우고 싶은 부분을 더 발전시켜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5년 다닌 직장을 퇴사할 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계속 근무했다면 목표했던 것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들 늦었다고 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도 있었지만, 꼭 이루고 말 거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점이 없는 제가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목표로 하는 것이 있다면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정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도 디딤돌로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ular shap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rounded rectangular bars of varying lengths.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V

지역인재 채용



- 1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성장 사다리
- 2 지역인재 채용, 너도 입사했네? 나도 할 수 있어!
- 3 길라잡이가 되어 준 지역인재 채용
- 4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 5 지방대생의 금융공기업 입사 일기
- 6 공학도, 지역인재 채용을 향한 지도(MAPS)를 그리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성장 사다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강○○



🔍 감사하지만 자랑스러울 수 없었던 나의 모교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함께했던 친구들은 각자 본인이 꿈꿔 왔던 미래를 위해 대학교 진학을 상의하고 있었지만 저는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 형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던 선생님께서 장학금 지원 제도가 많은 한 지방 사립대학교를 추천해 주셨고 다행스럽게도 등록금과 더불어 생활비 장학금까지 받아 입학하였습니다.

저의 모교는 부모님 도움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지원해 주었을 뿐 아니라 가끔 생활비를 모아 용돈도 드릴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부분을 지원해 주었기에 지금까지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4학년 취업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자랑스러운 모교가 아닌 감추고 싶은 이력서 한 줄이 되어 버렸습니다.

🔍 100번 일어나고 101번 넘어진 취업 준비기간

지방의 작은 대학에서는 취업 준비생이란 타이틀을 갖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취업 준비카페에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이력을 한 줄 만드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취업 준비기간을 돌아보면 세 가지 어려움이 대표적으로 생각납니다.

첫째, 대외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대외활동은 서류 전형에 자주 등장하는 ‘본인이 난관을 극복한/목표를 달성한 등의 경험을 써주세요’라는 문항을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만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 항목은 다섯 개 정도의 구성으로 다양한 경험을 돋보이기 위해 문항별로 학부활동, 대외활동, 인턴 경험 등을 겹치지 않게 작성하지만, 대외활동이 부족한 학생은 소재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채용 1차 관문인 서류전형에서부터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저 또한 서류전형 준비를 위해 대외활동을 탐색했으나 학부 2학년 당시(2014년)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외활동은 대다수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도권 학생보다 추가적으로 교통비, 숙박비, 이동 시간을 지불하고서야 하나의 대외활동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취업 정보를 얻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학부를 재학하던 시절에는 지역인재 목표 할당제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당시 교수님도 지방대생의 현실을 인지하고 대기업·공공기관 준비보다는 공무원을 권유하셨고, 학교 차원에서도 공무원 양성을 주도하여 취업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서류부터 면접까지 실전에 부딪쳐 하나하나 노하우를 스스로 학습해야만 했습니다. 맨땅에 헤딩을 한 경험으로 얻은 점도 많았으나 채용 정보를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셋째, 꿈을 함께 키우는 친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취업 준비는 장기간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과정으로 함께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 가면서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친구들의 존재는 큰 힘이 됩니다. 제 모교의 가장 아쉬웠던 점은 수능을 잘 보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학금을 받고 진학한 친구조차도 점차 목표를 낮추어 아무도 대기업·공공기관을 바라보지 않고 중소기업 또는 공무원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하게 되었고 홀로 하는 레이스 속 외로움을 이겨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현실과 타협하여 초봉이 높은 중소기업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고 입사하였습니다.

🔍 넘어진 나에게 손 내밀어 준 지역인재 목표할당제

중소기업 입사 후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으론 공공기관 입사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허전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업무 성과로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기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용역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많은 용역을 수행하면서 정해진 제안서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부터 참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국토부 산하 연구관리기관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공공기관에서의 근무만족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행기관으로 용역에 참여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을 개선하면서 보람을 느꼈고 해당 경험을 되살려 기관 혁신경진대회에서 1등을 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신 선배님께서 정규직 채용 준비를 추천해 주셨지만 부끄럽게도 오랜 기간 실패하면서 좋은 회사는 좋은 학교 출신만 갈 수 있다는 편견에 선불리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망설이던 모습을 보던 선배님께서 지방 혁신도시에서 지역인재를 우대하는 할당제가 있으니 출신대학 지역의 공공기관을 찾아 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운명처럼 정규직 준비를 결심하자마자 대구에 위치한 산업부 산하 연구관리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 목표를 명시한 공고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채용 할당제는 위축된 마음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고 선배님도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사팀 직원과 신규 입사자를 소개시켜 주는 등의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2월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공공기관 직원으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 이제는 내가 손 내밀어야 할 때

현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교육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청년인턴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회사 특성상 저희 회사 청년인턴은 지방대생이 다수입니다. 인턴이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고민해 다음과 같이 구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취업을 준비하면서 궁금하지만 찾기 어려웠던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별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어 고민했던 경험을 인턴은 겪지 않도록 원내 채용 담당자가 채용절차, 출제 의도, 면접관이 해주었던 이야기를 전달하는 취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무경력 입사자, 청년인턴 후 입사자, 무기계약직 후 정규직 입사자 직원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필요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둘째,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인터넷강의 비 지원부터 PT 면접을 위한 PPT 및 발표 교육, 인성면접 준비를 위한 면접 교육까지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집단과의 소통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입사 초 부서를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 과제를 부여해 부서 업무 파악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선배님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멘토를 1:1로 매칭해 출장 동행 등 실무를 체험하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고경력 직원과 멘토링을 구성해 배움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업무 발표회 때는 공공기관 인사팀장님을 위원으로 섭외해 그분들의 시야에서 인턴 발표에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턴 프로그램은 매해 종료 후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청년인턴의 16%, 2022년 청년인턴 36%가 대기업·공공기관에 입사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프로그램 개선이 주는 효과도 있었겠지만 취업을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2021년에 취업을 성공한 인턴이 2022년 인턴에게 지방대 인재도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방대 출신인 제가 입사하여 지방대생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혜택을 받은 인턴들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희망을 건네준 것처럼 현재 채용된 지역인재들은 앞으로 더 큰 나비효과를 만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수도권 학생의 입장에서 지방인재 목표할당제가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인재 목표할당제는 지방에서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한줄기 빛이라고 생각함

지역인재 채용, 너도 입사했네? 나도 할 수 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 | 김○○



Q '~답게 행동하는 사람'

1년 정도의 취업준비생이라는 신분에서 취업준비생답게 행동하며 제게 주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달성하여 결국 2021년 상반기 신입사원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이라는 제약에 굴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저라는 가치를 키워 나갔고, 그러한 경험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Q '지역의 단점을 장점으로'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유년시절과 대학시절을 보냈습니다. 지역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속에서 저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생으로서 학생답게 행동하기 위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졸업할 때에는 차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대학의 학생들보다 다양한 스펙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방에서만 이루어지는 특색 있는 활동들을 통해 수도권 학생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복데이 홍보대사, 전주시 도시재생 서포터즈, 전라북도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등 그 속에서 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들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 관점들을 배울 수 있었고 제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 '지역인재채용=자신감'

저의 취업에 방향성을 잡게 해 준 활동은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단에서 주최한 이전 공공기관 멘토링이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본사를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블라인드 제도와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지역(전북) 인재 채용목표 30%라는 수치는 결과적으로 지역인재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5년도에 전북으로 이전한 다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입사를 하였고 문득 '어? 너도 입사했네?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취업준비를 하며 자존감이 떨어질 때 저를 다잡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활용한 전략적인 취업준비'

지역인재 채용이 더욱 확대되며 교내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그에 걸맞는 지역인재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양성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제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활용한 제도는 교내 '기업의 달인 되기'라는 활동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기업분석을 토대로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과 가치관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입사한 분들로부터 들은 직무에 대한 설명과 실무와 관련된 생생한 이야기들을 통해 취업준비에 있어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달인 되기를 통해 지적측량 직무가 저와 잘 맞는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다음부터는 지적측량 직무로 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활용한 제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주최한 지적기사 실기 준비생을

위한 교육 활동이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직무의 경우 지적기능사 이상의 지적 관련 자격증이 필수자격요건입니다. 지적기사를 준비하며 1차 필기의 경우 독학으로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실기의 경우 측량 실무에서 쓰이는 토탈스테이션이라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했습니다.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고 결국 낙방하게 되었습니다. 2차 실기를 준비하던 중 우연히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2차 실기 준비생을 위해 토탈스테이션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였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평판측량과 토탈스테이션을 활용한 측량을 해 볼 수 있었고 다음 실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이 맺어 준 인연이 결국 입사동기가 되다'

지역인재 육성사업단에서 주최한 멘토링을 통해 저와 같은 기업에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 입사를 위한 공채 대비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필기전형은 전공 70%, NCS 30%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에 전공 공부 위주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과목별로 문제를 만들어 공유하였습니다. 시간을 맞춰 놓고 문제를 풀었고 1년 동안의 이런 노력들은 입사시험을 볼 때 긴장감을 풀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터디원들과 문제를 풀며 오답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선의의 경쟁의식이 생겨 다음 스터디에서는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터디가 끝난 후에는 식사를 하며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며 회포를 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실력을 쌓아 갔고 저희 스터디원 6명 모두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마지막 단계인 면접전형을 준비하면서도 스터디를 활용해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내가 지원한 기업에 대해 알고 그에 맞춰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스터디원들과 함께 기업분석, 기업의 방향성, 기업의 이슈들을 정리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하여 좀 더 전략적으로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가져온

정보만으론 직무에 관련된 답변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멘토링을 통해 만났던 현직자 멘토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측량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측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업무 절차 등과 같은 생생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까지 남은 2주 동안 스터디원들과 매일같이 만나며 면접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스터디원 6명 최종합격이라는 결과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입사 동기가 되어 지금은 전국 여러 지사에서 국민들에게 편리한 국토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은 저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Q '인프라+지역인재+다양한 기업'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체 인구의 약 50.4% 정도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와 일자리 때문에 지방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저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지역인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인재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단순히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슷한 분야의 기업들도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의 경우 국제금융 중심지 조성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업의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형성되고, 이는 지역발전과 지역인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Q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지역인재'

취업을 준비하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오며 저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해? 나는 못 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는 '어, 한번 해 볼까? 해 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과정이 고통스럽

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한 순간들이 모여 저라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지역인재라는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저 또한 지역인재로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국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라잡이가 되어 준 지역인재 채용

도로교통공단 | 차ㅇㅇ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 이렇다 할 꿈이 없던 평범한 20대 청년 중 하나였던 제가 진로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었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제도에 대해 저의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기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 '진로에 대한 고민'

저는 대학교에 진학할 때 성적에 맞추어 집 근처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취업이 잘 된다는 단순한 이유로 회계라는 생소한 학문을 전공으로 선택해 이렇다 할 목표나 꿈이 없이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1, 2학년을 보냈습니다.

졸업이 가까워지고 취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될 즈음엔 친구들은 벌써 대기업, 공무원, 금융권, 전문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해 저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었고, 저는 혼자 진로의 방향을 잡지 못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열린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와 관련된 홍보

를 보게 되었고 생각하지 못했던 진로에 대해 관심이 생겨 공공기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채용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 '진로의 방향성을 잡아 준 지역인재 채용'

합동 채용설명회는 크게 두 가지로, 강원도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홍보부스와 인사담당자들의 채용설명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홍보부스는 각 기관의 현직자들이 부스를 찾아온 취업준비생들에게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고 취업이나 현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으며, 채용설명회는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기관별 채용일정과 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날 채용설명회에 두 시간가량의 짧은 시간을 참석했지만 당시 저에게는 강렬하게 인상이 남은 시간이었고,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하게 해 준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중 머릿속을 맴도는 단어는 '지역인재 채용'이었습니다.

강원도에는 큰 기업이나 일자리가 많이 없어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은 서울 등의 큰 도시로 가 취업을 준비하거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위 선배나 친구들을 봐도 그러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창생활과 심지어 군대까지 강원도에서 복무한 저에게 있어 강원도는 제 인생에서 많은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가진 애정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만큼 저에게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크게 다가왔고,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던 저는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목표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 '지역인재가 되기 위한 노력'

채용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채용제도를 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단순한 스펙이 아닌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무수행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목표가 없었을 때에는 취업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목표를 세우고 나니 방향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영·회계·사무 직렬로 취업을 준비하기로 계획하고 해당 직렬별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고 한 걸음씩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을 찾아 취업과 학과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자격증들을 학기 중에 취득하여 취업준비에 대한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위해 학과 사무실과 학교 취업지원센터 등을 찾아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확실한 꿈이 생겨 의지가 불타던 덕분인지 2년이 조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노력해 자격증 4개와 토익점수 취득, NCS 기반 회계경진실무대회 입상, 세무법인 인턴 경력 등 직무역량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꿈에 더욱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며 취업준비를 하던 4학년 마지막 학기 중 도로교통공단의 회계 직렬 지역인재 채용공고가 올라왔고, 저는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도로교통공단에 입사해 공공기관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지역인재들을 위하여’

입사 이후 공공기관 생활을 하며 제가 학생 때 참여했던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에 기관 담당자로 참석하게 되었을 때에는 무척이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년 전의 저처럼 공공기관 취업의 꿈을 가진 분들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았고 그때의 저에게 필요했던 조언이나 정보들을 떠올리며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되었을 때에는 뿌듯함과 함께 취업과 관련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통한 취업과정에서 생각보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많은

곳에 지원제도와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지자체, 학교 등 공공기관 취업과 관련해서 채용설명회, 채용박람회, NCS 직무 경험 체험 등 유용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실제로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의 홍보가 부족하고 서울에 비해 지방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변 지방에 거주하는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을 봐도 인터넷을 통해 취업정보를 얻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채용설명회나 취업박람회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인터넷으로 얻은 정보들과 직접 각종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여 공공기관의 현직자들과 이야기하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의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정보의 질에서도 그렇지만 마음가짐과 열정에 불을 지필 수 있게 만들어 준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많은 공공기관 취업준비생, 미래의 지역인재들을 위해 지방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을 늘려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분들과 공공기관 취업을 꿈꾸는 많은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꼭 꽃피울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여OO



Q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제목입니다.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 노력한 지난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보이지도 않는 긴 강의 끝을 향해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부단히 노력한 값진 시간이자 몰랐던 또 다른 나를 마주한 귀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최종합격'이라는 네 글자가 주는 안도감과 성취감을 떠올리며 지난 시간들을 복기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상반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여OO이라고 합니다. 진정성 있는 문장이 주는 힘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저이기에 이 글을 읽는 모든 공공기관 준비생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Q '나라는 사람에 대하여'

2019년 2월, 저의 대학 졸업식 날은 7년간의 대학생활이 끝났다는 아쉬움보다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가슴 한 켠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어진 취업시장, 지방대 출신, 문과, 27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 그리고

무엇보다 뚜렷한 색이 없는 나에 대한 고민으로 그렇게 저는 사회에 내던져졌습니다. '공공기관 입사'라는 막연한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내실을 다져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했기에 막막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지난 날의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나열해 보며 '나'라는 사람이 현재 가진 강점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관광경영이라는 학문을 주 전공으로 하며 경영학 및 회계학 등 타 전공 과목들을 두루 공부해 왔으며, 교내 신문사 기자단 활동과 더불어 전공 특성상 외국어 능력이 중요했기에 해외 교환학생 경험, 높은 어학성적 보유, 봉사활동 등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내가 원하는 공공기관 분야로의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직무 관련 자격증과 직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나'에 대한 탐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었고, 각종 취업 커뮤니티, 선배들의 조언 등을 활용해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 필요한 역량과 NCS 전형 및 직무 관련 자격요건 등을 파악하였으며,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직무 경험을 업그레이드하다

지방에서 취업을 준비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채용 박람회를 비롯해 NCS 강사 초청 강의, 취준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유명 취업 멘토와의 대화 등 각종 취업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설령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해도 지방에서 매번 서울로 이동하며 발생하는 교통비와 체력 소모는 가뜰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취준생들에게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역 내에서 열린 기회들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교내 취업지원센터와 공기업 현직자와의 1:1 멘토링 및 강연, 직무 자격증 시험 비용 지원 서비스, 무료 인·적성 검사 및 NCS 강의 등 각종 교내 취업지원 서비스들을 적극 활용하며 필요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자체 단위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경제적 기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에 지원하고 참여하며 지역 관공서에서 일 경험 실습생 활동을 하며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 국민취업제도 프로그램을 활용해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공공

기관 지역인재 채용전형을 통해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 등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두 번에 걸쳐 체험형 인턴으로 약 9개월간 일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 내 경영기획본부와 고객지원부에서 일하며 기본 문서 보조 활동뿐만 아니라, 전표관리 및 회계감사 보조 업무 등 기획 및 재무 정보 관련 통제 활동을 경험하며 전사적 프로세스를 파악할 수 있었고, 민원 응대를 통해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필요한 마인드 역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취업준비 기간 동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취업 관련 커뮤니티와 사이트를 찾고 뒤져 가며 지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씩 직무 역량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추후 공공기관 입사 시 필요한 저만의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학생들과 비교하면 인프라 측면에서 분명히 지역적 한계는 존재합니다. 다만 주어진 환경을 타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처한 현실을 냉철히 판단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반드시 길은 열려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필기전형,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서는 크게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의 세가지 전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중 취업준비 기간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필기전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필기전형은 크게 NCS(직업기초능력평가)와 전공(직무능력평가)으로 나뉩니다. 특히 사무직의 경우 전공과목은 기업에 따라 단일전공, 상경통합, 통합전공 등으로 갈래가 나뉘지는데, 저는 상경통합(경영학+회계학+재무관리+경제학) 위주로 준비하였고 필요에 따라 행정학, 법학 등의 과목을 덧붙였습니다. 저의 경우 NCS 2, 전공 8의 비율로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시까지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였으며, 오전에는 주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과목을 공부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전공과목(직무능력평가)에 할애하였습니다.

먼저 NCS의 경우, 기업마다 모듈형 및 PSAT형 등 선호하는 시험 스타일이 상이했기에 해당 기업의 과거 필기 후기를 파악하며 유형별로 준비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모듈형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모듈형 교수자용 파일을 출력하여 필요한 부분에 맞게 필기시험 2주 전부터 꾸준히 암기하였습니다. PSAT형의 경우 온·오프라인 강의를 적극 활용하며 시험 유형을 익히고, 기본서를 3회독하여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후 민경채, 5급 PSAT 등을 꾸준히 시간을 재고 푸는 것은 물론이고, 오답 리뷰를 하며 빨리 푸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수리영역과 자원관리영역이 취약하였기 때문에 오프라인 NCS 스테디를 활용하여 부족한 영역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였고,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 문제는 바로 스킵하고 자신 있는 유형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빠르게 풀어 나가며 최대한 정답률을 높이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시험 당일의 경우 시험문제의 80%를 풀고 그중에서 정답률 80% 이상을 목표로 하여 문제를 풀었습니다. NCS의 경우 개인 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기본 틀을 잡은 후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 하루에 1~2시간씩 꾸준히 문제풀이에 집중하였습니다.

전공시험의 경우 경영학, 회계학, 재무관리, 경제학 등 과목마다 내용도 방대하고 과목별로 한 번 회독하는 데에만 두세 달이 걸릴 정도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먼저 과목마다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개념을 익히고 곧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갔습니다. 전공 과목의 경우 휘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회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목별 개념 강의를 통해 기초를 파악한 후 문제풀이를 통해 끊임없이 회독하여 나만의 노트를 만들고 자주 틀리는 문제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과목별로 10회 이상 회독을 목표로 하여 끊임없이 공부하였습니다.

사실 필기전형이 공공기관 취업준비의 8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전형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한 덕분에 총 네 번의 필기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성인이 된 이후로 오롯이 목표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공부한 경험은 지금까지 저에게 큰 자산으로 남아 있으며, 공공기관에 입사를 한 지금에도 이때 당시 공부하였던 직무 지식들은 업무를 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마침내 뜨겁게 부서지는 햇살을 만나다

저는 총 세 번의 최종탈락을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동안 제 자신에게 단 한순간의 후회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취업준비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최종 관문에서 번번이 탈락을 경험한 순간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고, ‘불합격’이라는 세 글자가 주는 단어의 무게감은 또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좌절감은 짧게 끊어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합격할 때까지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빈 곳을 채워 나갈 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노력한 덕분에 올해 상반기 현재 재직 중인 공공기관 공개채용에 도전하여 최종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또한 주변에서 ‘이제는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매 순간이 고비였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고 이번에도 안되면 정말 포기해야 할까라는 의구심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 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합격 소식에 지난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저도,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며 무던히 정진한 끝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듯이 여러분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짓는 여러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나를 위해 부서지는 따스한 햇살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대생의 금융공기업 입사 일기

한국주택금융공사 | 윤○○



🔍 '실패'했다는 생각으로 왔던 지방대학

무엇이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계속되는 진로 고민 끝에 '경영학과 가면 돈 많이 벌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6개의 대학 원서를 모두 경영학과로 지원했습니다. 딱히 가고 싶은 학과는 없었지만, 가고 싶은 지역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은 서울로 가야 한다'라는 말을 항상 듣고 살았기 때문에 6개의 대학 원서 중 2개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수능 시험에서 기대 이하의 점수를 받아서 부산에 소재한 대학교 한 곳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대학 진학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재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걱정을 안고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 수도권과의 정보격차

대학을 다니면서 뉴스로만 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정보격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대외활동(대회, 공모전) 등이 서울을 위주로 열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학교는 수도권 학교에 비해 선후배 간의 정보교류나 스터디가 활발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취업

준비 경험이 쌓이면서 선배와의 교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스터디 또한 더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적인 소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금융공기업을 향한 명확한 목표 설정

정보격차로 인한 마이너스 요소를 상쇄하기 위해 빠른 시기에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금융이라는 분야 내에서 금융공기업과 은행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같은 금융권이라 하더라도 서류, 필기, 면접 방식이나 인재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저만의 직장 선택 기준을 다섯 가지로 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금융공기업으로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진로를 결정하고부터 학교 애플리케이션 알림을 통해 금융공기업 취업·진로 관련 자료를 빠르게 제공받았습니다. 마침 같은 시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오픈캠퍼스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의 유동화 사업과 수평적인 조직문화에 관심을 가져 공사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공기업도 시험유형이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융공기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고민하던 저에게는 주택금융공사 오픈캠퍼스가 공사를 1순위 목표로 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세 개의 기관을 준비했습니다. 세 개의 기관은 개인적인 사업 관심도, 필기 스타일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객관식 시험보다는 약술, 논술에 강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방식으로 시험을 치는 기관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나니 공부를 하면서 흔들림이 없었고, 공부 시간에 비례하여 실력이 증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필기 외에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금융에 관한 관심과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기업분석대회, 대학생 금융 포트폴리오 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했습니다. 시험 스타일이 비슷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용분석사, AFPK,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등 각각의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또한 취득했습니다. 이후에는 각각의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핵심 사업을 분석하고 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연구원 보고서 등을 읽으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하였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면접 스테디를 진행했습니다. 스테디원과 모의면접을 준비하면서 혼자서는 파악하기 힘든 비언어적 습관을 수정하고, 면접 단계에 따른 면접전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스테디를 같이 했던 구성원 두 명과 공사에 입사하여 지금도 이 입사 수기를 함께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취업전략이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뚜렷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업에 지원하여 시험을 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 원하는 기업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인재 제도 효과

* 개인적인 측면

학교의 소재지가 부산이지만 기업이 집중된 서울로 취업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제가 속한 경영학과 과목인 ‘글로벌 엔터프라이저십’에서도 많은 금융기관의 채용팀이 회사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채용설명회, 취업전략 강의도 많아졌습니다. 채용목표제가 생기면서 기업 입장에서 지방의 우수한 인재를 포섭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전과 다르게 금융공기업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청년들이 자신감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금융공기업에 취업하는 지방대생이 늘어나다 보니 선후배와의 교류도 증가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공기업에 입사한 선배가 많지 않아 친분의 정도와 관계없이 취업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많은 선배들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사에 취업하고 두 번에 걸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지방대생은 금융공기업에 입사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인식이 허물고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품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관련 역량을 쌓을 기회도 많아졌습니

다. 대표적인 것이 인턴입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을 때는 인턴에 지원하면 서울까지 면접을 보러 가야 했고, 합격한다고 해도 서울에서 지낼 방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금전적으로도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청년인턴을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 사회적 측면

공공기관 특성상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은퇴금융아카데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택금융의 수요자인 서민들의 주택금융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 문현동에 위치한 BIFC(부산국제금융센터) 각 기관들은 부산을 금융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 인재 채용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 및 정책 제언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과도기 단계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만큼, 수도권·비수도권 학생 간의 의견차를 좁히고 더 많은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인재 대상 검토 및 공정성 확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된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가 최종학력 대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연고지가 지방에 있지만 대학교를 수도권에서 다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대상에서 배제되어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수도권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연고지가 지방에 있다면 지역의 전문가로서 장기근속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합격 커트라인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채용결과를 보면 수도권과 지역인재 합격자 간의 점수차가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한 번씩 커트라인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제도 자체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합격할

만한 점수로 입사한 비수도권 학생도 지역인재라는 이유만으로 따가운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해소하려면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유지하되, 합격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용비율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제도가 개선되어 나간다면 비수도권과 수도권 대학생들 간의 의견차가 줄어들어 지역인재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제조업 기반 회사에 근무하며 대학 시절에 배운 것과 직장에서 쓰이는 것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미스매칭 현상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재직자의 성장보다는 기업의 매출 성장에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취업준비를 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에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진짜 원하는 일'에 대한 고민을 곱씹으며 대학 시절 기억에 남는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학부 학생회, 전공 상담 기부단, 고교생 캠프 멘토, 교양과목 학생조교... 고민 끝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의 성장을 돕는 일'이라는 답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입사해 저를 성장시켜 준 울산에 다시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 입사를 위해 무분별한 스펙을 쌓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관심사, 학창시절 경험, 실무 경력을 다지는 것에 집중하였고, 2018년 4월 드디어 저는 '사람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서포터'가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Progress) 공학도 HRD 전문가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저는 입사부터 지금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에 근무하며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부서로 NCS 활용지원부에 배치받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NCS 기반 채용, 재직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 울산 지역에 있는 소재 관련 중소기업에 NCS를 기반으로 해당 기업의 직무를 분석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컨설팅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행정 절차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공학 전공을 바탕으로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었고, 민간기업 근무 경험을 통해 기업 담당자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제조업에 기반을 둔 기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에서 공학도라는 저의 배경이 매우 큰 자산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NCS 기획부에 근무하며 기관 서무, 회계,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4년간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재학생 멘토링과 공단에서 진행하는 오픈캠퍼스(재직자가 멘토가 되어 취업준비생에게 노하우 공유 및 상담 등을 해 주는 행사)에 울산 지역 취업준비생 멘토로 꾸준히 참여하며 저와 같은 공학도들이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저는 모교인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기술경영학 석사과정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공학도라는 저의 배경에 기술경영학이라는 색깔을 입혀 'HRD 전문가'로 한층 더 성장해 국내 기업과 근로자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Suggest) 지역인재 응시자격 확대를 제안합니다

지역인재 채용은 취업준비생이 교육여건을 수혜받은 지역에 취업함으로써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업준비생 측면에서는 생활거점에서 일자리를 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직장에 정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인재는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작 유년, 학창시절을 해당 지역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학력을 타 지역에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역인재 응시자격 확대를 제안합니다. 지역인재 응시자격을 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의 최종학력 기준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5년 이상 재학하였던 학생들로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추진하는 것 또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실시한 울산·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처럼 인접한 광역시·도 간의 합의를 통해 합동 채용을 실시한다면 지역 청년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지역대학은 경쟁력이 높아지며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에서는 역량 있는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역인재 응시자격 확대 및 채용 광역화를 통해 인력 풀을 확대한다면, 울산과 같이 대학의 수가 적어 인력 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역인재 전형의 단점을 승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모를 통해 공공기관 입사를 꿈꾸는 취업준비생들이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ular shap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rounded rectangular bars of varying lengths.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V

장애인 채용



- 1 출발선상이 다르다 해도 행복해 질 수 있다
- 2 장애인이기에 남들과는 다른 공공기관 입사 과정
- 3 0.005% 확률의 특별한 사람
- 4 장애라는 경계를 넘어 사회라는 공간에서 지도의 정보를 보며 나아가는 나
- 5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 6 절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발선상이 다르다 해도 행복해 질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 신○○


 이야기와 현실의 차이는 주인공과 독자다

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요즘은 전자책, 인터넷, 동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 난 종이책으로 된 소설책을 좋아했다. 그중에서 무협 소설의 불우한 소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한다.

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장보도 보검, 가짜 장보도에 속아 비동에 모인 고수들이 함정에 빠져 죽고, 그 정보를 흘린 ‘흑막’은 조용히 뒤에서 비웃는 흔한 전개. 유복했던 집안은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어져 막대한 빚을 지고,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고, 아버지는 술에 빠져 살며, 어머니는 매일 식당 일과 부업을 해야만 했고, 아버지의 폭력이 끊임없는 집안. 혹은 어린 시절 이혼한 부모님과 신체에 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 흔한 악조건은 다 갖춘 소년. 적어도 작가로서 고민이 조금 부족한 이야기들인지도 모른다.

그렇다. 적어도 작가로서 고민이 부족한 듯 보이는 이야기가 바로 내 인생이다.

일곱 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그리고 막대한, 아니, 일을 하다 보면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빚을 진 어머니는 나와 형을 먹여 살리기 위해 쉬지 않고 매일 일을 나가셨다.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시고, 부동산 전단지 돌리시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또 찾으시고…. 나도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그리고 사실, 나는 장애를 갖고 있어 결국 열 살 때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발이 불편해서였다. 먼저 말하자면, 지금 왼발은 발가락 두 개가 없고 발바닥 부분은 휘어져서 U자 형태로 생겼다.

의사 선생님은 내 발을 보며 처음 보는 병이라고 했다. 왼발이 심각할 정도로 빨리 커지고 있어서 발가락을 절단하지 않으면 더욱더 비대해질 거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발가락 두 개를 절단했다.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 아마 발도 성장을 멈출 거라고 했다.

신발은 꼭 두 켤레씩 사야만 했다. 양발의 크기가 지나치게 다르기 때문이었다. 걸을 때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쉽게 발목을 삐거나 넘어질 수 있었다. 늘 긴장했다. 잘 뛰지도 못했다.

점점 어두운 성격으로 변했다. 친구도 없었다. 늘 말없이 책을 읽으며 지냈다. 장애를 받아들이기 싫었다. 그래서 더 소설책에만 몰두하며 지냈나 싶다.



동갑내기들과 비슷한 일상을 살고 싶을 뿐이었는데

나는 용돈을 받은 경험이 없다. 어머니께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웨딩홀 뷔페에서 음식 접시들을 치웠다.

2012년 최저시급을 지금도 정확히 기억한다. 4,320원이었다. 8시간을 딱 채워 일하면 일당으로 3만 4천원을 넘게 받아야 했다. 그런데 내가 어리다는 이유와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천원 단위를 빼 버리고 3만원만 주곤 했다. 그래도 나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어리고 몸이 불편한 내게 일을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것이다. 그때는 햄버거 세트가 3천원이었으니, 열다섯 살이었던 내게 3만원은 어마어마한 거금이었다.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아르바이트를 평일에도 하기 시작했다. 다만 알바 지원서를 낼 때 발이 불편한 것을 숨겼다. 장애인인 걸 알면 뽑아 주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시급을 적게 줄 것 같아서였다. 나중이라도 걸릴까 봐 조마조마했다.

학교가 끝난 뒤 야자는커녕 저녁부터 새벽 2시까지 주유소에서 기름충을 잡았다. 주말

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다. 매일매일 일을 하면 돈이 꽤 모일 줄 알았지만 전혀 아니었다. 매달 직접 내는 휴대폰 요금, 매일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저녁 끼니, 급식비와 공과금 등 도대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한 달 벌어 겨우 한 달 버티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자동차 부품을 약품 처리하는 공장에 다녔다. 새벽에는 택배 상하차도 뛰었다. 아픈 발로도 몸을 끝없이 혹사했고, 누적된 피로에 쓰러질 것 같은 나날들이었다. 정말 열심히 벌고 정말 열심히 갚았다.

나에게 있어 '일상'이란 집에 가면 함께 저녁을 먹을 가족이 있는 거였다. 주말엔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가끔 나들이를 가는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평범함을 꿈꾸었지만 늘 할 수 없었다. 내 또래들은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하고 용돈을 받아 놀러 다닌다는데. 난 왜 그런 게 안 될까? 그런 일상을 누리는 날이 오긴 할까?



장애를 받아들이다

스물네 살, 여름이었다. 공기업에 재직하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내게 조언을 하나 해 주었다.

“장애인 전형으로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해 보는 건 어때?”

후임으로 들어온 한 직원이 장애인 전형으로 들어 왔으며 내게 취업 준비를 권유한 것이다. 이 말이 내게 엄청난 길을 열어줄 줄은 몰랐다.

‘만약 공공기관에 입사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이런 고통스런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우선 장애를 받아들여야 했다. 받아들이기 싫었지만 분명 기회일 수 있었다. 그동안 숨기며 살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해야만 했다. 그날부터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채용에 대해 알아봤다. 비장애인에 비해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은 취업 문턱. 대한민국은 장애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나라였다. 장애를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되는 거였다.

중앙공기업, 지방공기업, 은행권까지 수백곳의 장애인 전형을 알아봤다. 그중에 어떤 곳은 토익 점수만 필요한 곳도 있었고, 또 어떤 곳은 서류와 면접만 통과하면 합격이라고 했다. 장애도 상관없고 학력도 상관없다니. 조금만 준비하면 나도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생겼다.

첫 토익 시험에서는 300점 정도가 나왔다. 부끄러운 점수였다. 몇 달 동안 토익을 공부하면서 틈틈이 새로운 공채를 확인했다. 그러다가 눈에 띄는 기업이 ‘한국국토정보공사’였다(이전엔 ‘지적공사’라고 불린 기업이지만, 고등학교 전공이 토목과였기에 자주 들어본 곳이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무기계약직 장애인 채용 맞춤형훈련 훈련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견하자마자 반짝, 하고 불이 켜지는 기분이었다. 이곳에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다른 걸 다 그만두고 이곳에만 몰두하며 준비해 보기로 했다.

서류는 여타 공기업들과 다를 바 없었다. 면접은 괜찮을지 내심 걱정했는데, 장애인이라는 선입견이나 편견 등 걱정했던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

합격 후 맞춤형훈련 과정은 전주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뤄졌다. 급히 방을 구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맞춤형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생 동기들은 연령대가 다양했다. 40대, 50대 형님들도 계셨기에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했다. 대화를 나눠 보니 모두들 의견이 비슷했다. 다들 장애인 전형으로 공채를 알아봤고, 정말 좋은 기회라는 거였다. 다들 꼭 합격하고 싶어 했다.

맞춤훈련 과정에서는 매일 토목과 교수님께서 대면으로 지적학, 「지적법」 등을 강의해 주셨다. 오후 5시에 강의를 끝나면 동기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서로를 응원해 주는 특별한 동지들이 생긴 기분이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 일생일대의 실수라 생각하면서 만점을 목표로 밤낮없이 공부했다. 그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 장애인인 내가 어엿한 공기업 직원이 되다니….



2022년 2월 21일,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사로 발령받았다. 내심 걱정했지만, 장애인이라는 편견 없이 첫 출근 날부터 따듯하게 환영해 주시는 너무나 좋은 동료분들을 만나 뵈게 되었다. 업무 관련 내용들과 드론비행, GNSS 측량 등 많은 것들을 알려 주셨고, 다양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다면서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주셨다.

이런 멋진 사무실에 내 책상이 생기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 자리가 생기고 내 직함까지 받고 나니 공직자로서 청렴과 의무감도 샘솟았다. 앞으로 갈 길이 먼 신입사원이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기회를 준 이 나라에 헌신하도록 책임감과 애국심을 갖고 일하고 싶다. 또한 이제는 조금 여가 생활도 하면서 지내고 싶다. 예전과 달리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었으니까. 고생하신 어머니께도 용돈을 조금씩 드리고 싶다.

난 소설을 좋아했다. 뻔한 클리셰가 가득했던 소설 속, 적어도 작가로서 고민이 부족한 이야기들이 내 인생이었다. 소설 속 인물들이 마지막에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고,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기도 했다. 악착같이 버티며 지냈던 나날들이 싫었고 장애 또한 받아들이기 싫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다 '나'였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며,

나는 장애인이다.

이제는 내 인생이 소설보다 더 좋아졌다.

장애인이기에 남들과는 다른 공공기관 입사 과정

건강보험공단 | 김○○



2022년도 상반기에 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징수팀에서 근무하며 서툴지만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명의 떳떳한 공공기관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갑작스러운 두 차례의 뇌수술로 인하여 얻게 된 두 가지 뇌병변장애로 우측 팔다리에 편마비를 얻게 되고, 시각장애로 왼쪽 눈에 심한 사시가 생겨 주로 오른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장애로 먹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자포자기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다시 살 수 있게 되고 몸의 반은 멀쩡한 상태라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준비하여 입사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공대 혹은 전문대에 입학하여 신체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나,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불가능하며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 대학에서 상담학을 전공하여 관련 시설에서 4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신체의 불편함과는 관련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찾았고, 남들보다 앞선 고객응대 능력을 노력을 통해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후 좀 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알아본 결과 공공기관 입사 정보는 구하기 힘들었고, 공공기관이 아닌 공무원에 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얻게 되어 공무원 시험을 장애인 전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혼자 두발로 걸을 수 있도록 재활하는 것과 글을 쓸 수 있도록 왼손 훈련을 하는 것 등과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당연한 것부터가 장애를 가진 저에게는 입사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오른손잡이인 제가 왼손으로, 그리고 오른쪽 눈으로만 동영상 강의와 책을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을 준비하였으나 간발의 차이로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반년을 더 준비하고 이왕 지원하는 김에 공공기관도 같이 지원하여 공무원 시험과 공공기관 두 군데, 총 세 곳에 최종합격하여 현재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장애인 전형은 입사 시 필요한 성적과 스펙 등이 일반전형보다 낮습니다. 시험이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적과 스펙을 일반전형과 최대한 동일하게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입사는 끝이자 결과가 아닌 시작이라 생각하며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근무 과정에서는 장애가 있기에 여러 장비를 지원해 주시고 업무를 적절하게 분배받는 등 여러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받고 있는 배려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형으로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강조해서 전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르게 들어와도 같은 월급을 받는 직원이니, 자신 몫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입사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은 장애인 전형을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과정과 방법이 일반 전형 준비자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신체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이 현장직을 생각하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무직을 생각하는 것은 비효율을 넘어 불가능한 것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서 수차례 상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부분을 부정확하게 준비하고 있어서 내담자에 장애 사항을 인지시켜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는 별개로 불가능한 것에 희망을 가지는 것보다 가능한 것에 희망을 가지고 그 준비 과정을 명확히 하여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일반 전형 지원자들이 토익 점수를 갖추는 것이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면 장애인 전형 지원자들은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일반인에게는 당연한 글을 쓰고 타자를 치며 걷고 움직이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노력이며 도전입니다. 저 역시

이 과정을 하찮은 것으로 스스로 느끼지 않고 내 나름의 노력이며 과정이고 스펙임을 인지하는 것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나에게 맞는 공부를 찾고 과정을 파악하고 도전 가능한 최선의 기관을 찾는 것까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장애인으로서 공공기관 입사를 희망하는 누군가가 부족한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돕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스스로 생각하였을 때 자신이 객관적으로 현장직에 적합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사무직에 적합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사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고민한 후 해당 일자리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준비한다면 효율적인 준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것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정책적 개선 요구사항을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이라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유용한 구직 정보와 나름대로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기관과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 정규직 준비와 같은 정보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해당 기관이 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결을 건당 실적이 필요하기에 비교적 정리하기도 쉽지 않고 일회적 실적밖에 되지 않는 양질의 정규직 자리보다 기간제 업무 등을 우선 제공하여 실적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해당 기관 실적에 정규직 일자리에 보다 높은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정규직 일자리 실적을 따로 만드는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이 개선된다면, 장애인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받아서 삶의 만족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0.005% 확률의 특별한 사람

국민연금공단 | 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주한 꿈과 가까워질 수 없는 헛된 바람입니다. 중학교 시절, 그저 입으로만 내뱉던 저의 꿈은 검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에 그려보기만 했던 그림은 어느새 지워지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보내 온 지난 현실을 마주했을 때, 털썩 겁이 났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는 생각에 무작정 달려간 곳은 특성화고등학교였고 다행히 좋은 기회를 통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1막,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한 대작전!

또래 친구들은 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때, 저는 사회에 뛰어들어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습니다. 스무살 시작부터 제 인생은 평범하기는 틀렸다고 생각하였지만, 입사 1년 6개월 후, 골육종을 진단받으며 더더욱 평범할 수 없는 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골육종은 뼈에 생기는 암으로 2017년 기준, 모든 연령대와 성별에서 10만명 중 5명이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다리에 생긴 종양을 없애기 위해 뼈를 자르고 인공기물로 대체하는 수술과 여섯 차례의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암치료 종결 후, 다리에서 시작된 종양이 폐로 전이되는 특별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0.005%의 확률로 선택받은 지체장애인이 되었고 하루 일과가 걷고

뛰는 게 전부였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2막을 열기 위해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며 컴퓨터 및 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점자책 제작을 위한 문서 작성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여 사무 관련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익숙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직무를 1순위로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좌우명 아래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입사를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2막, 6개월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다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격증이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에 모두가 '한컴토(한국사, 컴퓨터활용능력, TOEIC의 줄임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기에 앞서 어학 점수의 유효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짧은 기간 내에 승부를 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불편한 건 저의 다리일 뿐,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거나 부지런히 손을 사용하는 건 자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채용공고를 확인하였고 사무직무를 채용하는 모든 기관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 필기시험을 대비하여 손을 부지런히 활용하였습니다. 장애인 채용은 대부분 학력 무관으로 진행되어 NCS뿐만 아니라 전공 시험까지 응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학력이 고졸이었던 저에게 경영, 경제, 행정 등 전공 시험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은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론 내용을 적고, 외우고,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와 풀이 방법을 적고, 다시 외우는 걸 반복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필사였지만 전공 책, 문제집, 필기 노트를 쌓아 보니 어느덧 저의 허리만큼 쌓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비하여 저의 경험을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등 NCS 키워드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반복하여 재생하며 발음 및 자세 교정, 목소리의 높낮이, 속도 등을 스스로 피드백하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응시했던 NCS 시험에서 받은 점수

는 46점이었고 면접에서는 6명 중 5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합격 문구는 그저 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자극체에 불과하여, 멈추지 않고 준비를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와 면접 상황을 되짚어 보며 부족한 점을 찾아냈고 보완해야 할 사항을 숫자를 매겨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시험과 면접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리한 내용을 지속하여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9일, 국민연금공단에 최종 합격하며 6개월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3막, '평범'하고 싶습니다

지체장애인이 된 후, '사회는 내가 생각한 만큼 친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건넌던 횡단보도는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깜박이는 초록 불은 무심하게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빨간 불에 액셀을 밟으려는 운전자는 재촉하듯 경적을 울립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가지고 이동하기에 장애물투성이입니다. 친절하지 않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휠체어에서 일어섰고, 보조기구를 포기하고 주변 사물을 잡고 걸어 다니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다리 수술을 한 지 3년이 지난 지금은 평범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 "휠체어를 타는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장애인이야?"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제가 생각하는 '평범'의 기준은 사회에서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비장애인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건 저의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일하게 저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불러 주던 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이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다른 시선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Blind', 단어의 정의처럼 두 눈을 감고 평가합니다. 제가 작성한 자기소개서에서 간절함을 알아봐 주고 필기 시험을 위해 흘린 땀을 닦아 주었습니다. 또한 면접에서는 자신감과 당찬 포부를 담은 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저의 신체적 결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겨보겠다며 '0.005% 확률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치부하며 정신승리했습

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의 채용을 준비하면서 신체적 결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저는 더이상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으로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을 누군가에게...

가끔 끝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심장 터질 듯이 뛰어다니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 가슴 한 편이 저려 옵니다. 소설 『달려구트 꿈 백화점』의 등장인물인 키크 슬럼버는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생명은 제한된 자유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이에 자신을 가둬 두는 것이 공간이든, 시간이든, 저와 같은 신체적 결함이든...,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는 데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동안 제가 지내 온 시간에게 말해 주는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서 지친 친구들은 “이게 내 한계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자체만으로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왔습니다. 설령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그 벽을 허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진정으로 발휘할 때 그 누구보다 멋진 모습으로 꿈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계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지 마시고 그 벽을 부수고 일어나 자유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 유OO의 공공기관 입사 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라는 경계를 넘어 사회라는 공간에서 지도의 정보를 보며 나아가는 나

한국국토정보공사 | 유○○



나는 2020년 10월 말 큰 사고를 당하기 전, 장애가 전혀 없는 비장애인이었다. 그러나 사고를 겪은 후 어깨와 다리를 크게 다쳐서 오른팔은 자유롭게 올리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왼쪽 다리는 살점이 많이 떨어져 나가 피부이식을 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좌골신경이 손상돼 발가락과 발이 위로 들리지 않아서 걷는 것이 불편했다.

당시의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잘 다니고 있던 일반 측량회사를 계속 나갈 수도 없었고, 이직을 위해 응시했던 LX한국국토정보공사(현재 회사, 이하 LX공사) 계약직 전형 최종 합격 결과는 신기루같이 사라져 버렸다.

사고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고, 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나는 처음에 크게 실의에 빠졌으나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계속 그대로 가만히 있기에 나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았고 언제까지 부모님이나 주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는 없었다. 솔직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는 아니었지만 나는 계속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꾸준히 병원을 열심히 다니며 치료나 조언을 받거나 처음에는 밖에 나가면 휠체어를 타고 나가고, 조금 있으니 보조기구를 끌며 천천히 걸었고 불편하더라도 마침내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나아지자 나는 조금씩 집에서 취업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도 할 수가 있었다. 처음에는 몸이 좀 불편해도 사무실에서의 업무가 많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그 당시

에는 장애 판정을 받지 않아서 일반전형에 응시하였으나 통과하지는 못하였다. 그때 주변 지인으로부터 많이 다쳤으니 장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 장애등급 판정받으면 장애인 전형에 응시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처음에 그 이야기가 불쾌했으나 병원에서는 장애 판정이 예상된다고 하였고 손해를 봐도 본전이라는 생각에 병원에서 검사 후 다리의 신경 손상에 대해 장애 판정이 결정되었다. 그래서 장애인 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다. 장애는 2년 전 직장과 이직의 기회를 사라지게 만드는 동시에 사고 후 약 1년 뒤 장애인 채용 분야에 응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었다.

나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더욱더 노력했다. 평소에 걷기운동은 물론 재활과 관련된 수영, 실내자전거,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신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공무원 준비의 실패를 되새기면서 시험 준비도 열심히 했다. 장애인 전형이지만 계약직보다 더 나은 정규직이 될 수 있었다. 사실 내가 응시한 LX공사의 국토정보직(지적측량) 분야는 현장 업무 수행이 주 업무였다. 예를 들어 팔이 아프면 장비를 다루기 어렵고 다리가 아프면 현장에서 잘 다닐 수 없고 눈과 귀가 안 좋으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현장을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장 업무를 나가기 전 준비하거나 현장을 다녀와서 하는 모든 내업 업무는 팔과 눈만 자유롭다면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렵지 않다. 물론 다리가 불편하면 앉아서 작업할 수 있고 귀의 이상은 짧은 메모와 메신저로 대화를 대신하면 된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모든 장애인을 위해서 LX공사는 지적 자격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비록 비장애인과는 경쟁하지는 않지만 같은 시험을 보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격증이 없다면 업무와 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과 LX공사의 취업을 도와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는 전형이 있었다.

전형을 모두 통과하여 최종합격한 후 합격자들이 모인 연수원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니 나는 재활을 통해 장애를 얻은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했으나 오른팔과 왼쪽 다리의 불편함 때문에 앞으로의 회사 생활이 쉽지 않겠다는 막막함이 다가왔다. 최종합격은 했지만 채용형 인턴에 대한 합격이지, 앞으로 적응을 못 한다면 정규직 전환의 기회는 물건너가 버릴 뿐이었다.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지역 권역 선택의 기회를 먼저 받았다. 상대적으로 인원도

적고 통과한 성적이 좋지 않았던 장애인 전형 인원들을 상대적으로 크게 좋은 성적이 일반전형 사람들과 형평성 있게 구분하여 우선 선택의 기회로 배려해 주었다. 이러한 배려로 비교적 현장 상황이 괜찮고 원하는 지사로 발령 날 수 있었다.

지금은 처음 다닐 때보다 많이 나아졌으나 입사 초기에 기계를 세우고 보는 것이 가장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다리가 불편해 기계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았고 기계를 세운다 해도 오른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기계를 조작하여 실형을 찍거나 조작하는 데 많이 서투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 명이 한 팀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초반에 현장에서 기계를 세우는 것 외에 걸을 수 있고 장비를 들고 옮길 수는 있어서 풀을 들고 움직이며 실형을 찍는 것을 돕고 경계를 표시할 때 말목을 나르고 표시하며 사진을 찍어 정리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사무실로 복귀한 뒤에는 최대한 정확하게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내업 업무를 배우고 수행하는 데 힘을 썼다. 근무 시간에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몸을 회복하고 재활하기 위해 퇴근 후나 쉬는 날 실내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했고 틈날 때마다 공원을 걸으며 운동했다.

그러자 최근에는 팔도 어느 정도 잘 올라가고 걷는 게 많이 나아져 전력 질주는 아니지만 가볍게 혹은 꽤 빠르게는 뛸 수도 있다. 현장 업무를 전에는 버겁게 느꼈다면 요즘은 그래도 재밌고 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는 기계를 세우고 사용하는 일도 준비하고 연습할 것이다.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으나 장애를 가지고 회사 생활해 보니 팀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관심만 가지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정답은 아니었다.

우선, 그 사람의 장애를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노력하도록 유도하며 남들보다 뛰어난 점을 개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여 장애로 인해 한 사람 몫도 못 한다 생각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이 조금 불편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더욱 뛰어나고 똑같은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 정책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에 들어가서 적응하고 그곳에서 인정받고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토대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현재 및 과거의 사례와 미담들을 모아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장애가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나아지고 나빠진다면 그것을 늦출 수 있게 회사와 조직 차원의 배려와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금전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할 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배려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된다.

마지막으로, 장애는 불편함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의지와 노력할 힘도 같이 주고 그 힘을 써서 한 걸음 나아갈 수도 있다. 이 노력을 발휘할 공정하고 알맞은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독려해 주길 바란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한국공항공사 | 복○○



🔍 전생 #마케터 #출장 #공항

늘 비행기가 좋았다. 하늘을 가로지르며 하얀 구름선을 긋는 비행기의 까마득한 실루엣이 좋았고, 활주로를 이륙할 때 높아지는 엔진출력음의 힘 있는 느낌도, 기체가 지면을 벗어나 하늘로 떠오르면서 배가 붕 뜨는 그 감각도 좋았다.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항이라는 공간과 연결될 것 같다고 막연히 기대하고는 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늦깎이 군생활을 마친 나는 주로 해외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관리자로 경력을 쌓아 왔다. 어릴 적 공항에 대해 가졌던 그 기대 섞인 예감은 수십건의 출장과 몇 년간의 해외 체재 생활을 통해 현실이 되었다.

바쁘게 일하면서 다양한 고객과 파트너를 만나 많은 것을 경험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수룩한 초보의 테를 벗고 내 업무영역에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 함께한 소중한 연인과 결혼도 하고 그의 미소를 꼭 빼닮은 아이도 태어났다. 그렇게 잘 될 거라 느꼈다. 큰 행복을 얻었다.

그리고 오른쪽 몸이 굳었다.



그날은 중국에서 온 공급사 대표와 내가 담당 중이던 황사 방지용 마스크 생산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점심을 함께했다. 그때만 해도 몇 개월 뒤 코로나19가 대유행할 것이란 사실은 상상도 못 할 시기였고, 그날 미팅은 그저 겨울철에 많이 판매되는 KF94 마스크 재고를 최대한 확보해 두기 위한 포석이었을 뿐이었다.

일정 조율을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후 업무를 하던 중에 느닷없이 오른손이 무거워진다. 타자를 입력하는 게 버겁다. 부장님께 얘기하려고 일어섰는데 오른발이 안 떨어진다. 발을 간신히 끌고 가서 상황을 설명하는데 말이 어눌하다. 심상치 않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다.

응급실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검사를 받았다. 왼쪽 뇌에서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의 혈관이 막히고 말았다. 일주일 동안 누워서 엄청나게 힘들어했다.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 아니었다. 얼마 전까지 움직이는 게 당연하던 손발이 아무리 움직이라 명령해도 멈춰 있었다. 움직이는 방법을 아는데 또 몰랐다. 몸이 묶여서 움짱달짝 못 하는 포로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그래서 힘들었다.

재활병동은 의외로 활기찼다. 수많은 환자가 몸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각자의 나날을 불태웠다. 나도 재활 일과를 마치고 나면 병실에서 그날 치료사와 익힌 동작을 홀로 연습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학교에서 낸 숙제를 검사받듯이 전날 연습하며 생긴 여러 의문점을 치료사와 나누고 궁금증을 해소하고는 했다.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지, 또 언제 회복할지 기약 없는 과정이었지만 그냥 해야 한다고 마음먹고 매일 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매 주말이면 외출과 외박으로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큰 힘을 얻었다.

해를 넘기고 재활병동 생활을 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족면회와 주말 외출·외박을 전면 통제한다는 소식이었다. 가족들을 보기 어려워진다는 상황에 대한 낙담과 슬픔 속에서 떠오른 생각은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

‘내 마스크 담당 후임자는 성과급 많이 받을까?’

병동 안팎에서 나는 치료사들, 다른 환자들, 가족으로부터 멘탈갑(甲)이라 칭해졌다. 매일 똑같은 재활치료 동작을 쌍심지 켜 눈으로 연습해서 그랬고, 여러모로 힘든 현실에 이따금 눈물짓는 가족과 부둥켜안고 통곡한 직후에도 정색하고 다시 운동하는 모습에 그랬으며, 휴대전화 앱으로 검색한 소형중고차를 병원 주차장으로 택송 주문하고 개조업체를 섭외한 직후 왼손, 왼발로 대담한 운전을 시작했을 때 그러했다. 모든 일을 스스로 극복해 보려는 의지에서 비롯한 영광의 호칭이었다.



모색과 의사결정 #자기객관화 #작절 #재도전

대략 열 달을 병원 안에서 보낸 후 퇴원을 결심했다. 재활의 요령을 어느 정도 익혔으니 운전으로 왕래하며 통원 치료로 전환해도 될 듯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퇴원 후 그리운 가족과 재회하여 같이 먹고 자고 웃을 수 있는 꿈같은 시간을 즐겼다. 재활도 계속 열심히 했다. 그러면서 현실의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다.

장애를 지닌 채로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무슨 일을 잘할까? 오래전 학부 전공기초 수업에서 처음 접한 선택과 집중 개념을 되새기며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학창 시절부터 발병 전 직장생활 시기까지 내내 받아 왔던 평가는 논리적이란 것이었다. 그다음 이어진 생각은 이러한 내 강점을 최대한 부각할 수 있는 채용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직자의 논리력, 구조화된 사고력을 검증해서 구성원으로 선발하는 채용시장은 어디에 있는가?

거기까지 생각이 흐르고 난 직후에는 공무원 선발시험 응시를 고려했다. 채용과정과 구성 등을 한 달 정도 찬찬히 살폈다. 생소한 과목이 많았다. 책값을 많이 써야 했다. 암기해야 하는 분량이 많았다. 시간도 많이 써야 했다. 보면 볼수록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짙어졌다.

나는 재활은 긴 호흡으로 멀리 바라보고 진행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반면에 다시 할 일에 대해서는 태도가 달랐다. 나는 단기간에 취업에 성공하고 싶었다. 그런 의도에 비춰 볼 때 공무원 시험 준비는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 있을지 더 알아보다가 공기업·공공기관의 NCS 채용정보를 접하게 됐다. NCS 특징을 파악한 즉시 이거라는 느낌이 왔다. 그리고 NCS 채용공고를 살펴보니 눈에 띄는 기업명, ‘한국공항공사’. 공항이다. 가슴이 뛰었다.

한국공항공사를 목표로 정하고 시중의 NCS 문제집을 샀다. 많은 책을 보는 대신에 문제유형별 특성을 명료하게 정리한 교재 세 권을 정했다. 매일 일정량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풀어보며 NCS 필기시험에 점점 익숙하게 했다. 숨 쉬듯 자연스럽게 접하는 준비전략을 통해 제법 높은 점수로 필기를 통과했다.

그러나 최종관문인 면접에서 낙방했다. 아쉬움이 컸지만 NCS를 처음 접하고 면접까지 간 것은 큰 경험이라고 나를 다독였다. 이후 타 공공기관 입사에 성공해 잘 적응하면서 1년 여간 재직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공항공사 채용공고를 다시 접했다. 다시금 빨라지는 심장박동을 느꼈다.

머칠 생각한 끝에 재도전을 결심했다. 나의 지난 도전을 복기해 보았다. 당시에는 첫 도전이라 미처 자각하지 못했는데 돌이켜 보니 내 면접 준비가 빈약했음을 깨달았다. 목표로 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익히는 데에 소홀했고, 면접 중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어긋나는 개인 신체조건을 언급하는 등 큰 실책이 있었다.

이러한 실패분석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재도전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했다. 답변은 간결하고 분명하게 한다는 제1원칙을 세웠다. 뒤이어 목표 회사의 사업과 비전에 집중하면서 나의 강점과 연결 짓는다는 제2원칙도 정했다. 끝으로 소위 TMI(너무 과한 정보)를 최소화해 블라인드 원칙을 위반하는 실수를 피해야 한다고 가슴에 새겼다.

그 결과 면접관 한 분에게 지금처럼 긴장 풀고 면접을 잘 마치라는 덕담을 들었다. 좋은 예감이 있었지만, 결과공고일까지 나를 차분하게 다독였다. 합격자 발표일 오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와중에 합격통보 메시지를 받았다. 마침 함께 있던 아내와 맨 처음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다.



합격의 기쁨을 만끽한 이후 입사를 위한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갔다. 신입사원 교육도 순식간에 지나갔다. 현재는 서울지역본부 보안관리부 소속으로 김포공항 보호구역 출입이 필요한 상주업체 임직원의 출입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좋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덕분에 배정받은 업무도 즐겁게 수행하고 있다. 사내에는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기회와 정보도 많아서 적극 활용 중이다. 무엇보다 이전의 삶과 비교할 때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만족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인제 와서 생각해 보니 재활병동에서 지낸 나의 열 달은 다시 태어나기 위한 태중의 시간이었고, 그 후의 한두 해는 재탄생한 내가 이 사회에서 새로운 걸음마를 시작한 시간이었다. 그 걸음마를 자신감 있게 연습하도록 도와주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하는 나의 새로운 직장이 참 좋다.

요즘 여기저기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온다는 소식이 부쩍 늘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고난을 이겨내고 각자 소명을 다하기를 희망한다. 내가 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절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



낭랑 19세.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나에게겐 유난히 춥던 겨울이었다. 교통사고로 인해 6개월간 차가운 병실에 있었으며 퇴원 후 나에게 남은 것은 후유증과 우측상지 장애라는 꼬리표였다. 절망의 연속이었다. 앞으로의 인생보다 점심 식사를 위한 젓가락질에 대한 걱정이 컸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회색빛이었으며 눈물만이 가득했던 모습만 있었다.

3월, 조금 춥지만 따스한 봄에 우편 한 통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이○○ 귀하. 절망 속에서 빛을 찾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우편물은 건강보험 급여 사용 등에 관련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문득 나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며,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삐뚤삐뚤. 다시 한번 책상에 앉아 어설픈 왼손 글씨를 연습하며 사회복지학과를 목표로 수험생활에 돌입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삼키며 글씨를 적었고 문제를 풀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적힌 편지봉투를 보며 지금도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자세를 고쳐 앉고 노력하였다.

3월, 대학생활이 시작되었으며 목표하였던 학과로 진학하게 되었다. 첫 전공 시간. 학과 유관 기관 등에 대하여 배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눈에는 전공서의 작은 글씨

중 유일한 볼드체로 보였으며 너무 멋진 단어로 보였다. 단순한 대명사에 지나지 않지만, 공단의 우편 통지서는 어두운 시간 속에 있는 나에게 유일하게 온 편지였으며, 나에게 큰 목표를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줬던 곳이었기에 큰 의미로 다가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유난히 더웠던 3학년 여름이 끝날 때 즈음, 우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접하게 되었다. ‘도전’이라는 단어만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고, 그 당일부터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당시엔 이때가 나의 인생에 있어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었다. 처음으로 작성해 보는 자기소개서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담백하게 나의 생각과 경험을 담으려 노력한 결과, 합격이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3개월간 내가 원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생겼다. 첫 조직생활, 첫 민원응대 등 마치 유치원생이 된 것같이 모든 일이 나에게 처음이라는 단어로 다가왔으며 어려운 민원을 겪는 등 마음이 불편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어려움은 해낼 수 있다, 나는 절망을 이겨내고 일어섰으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섰고 편견 없이 나라는 사람을 바라봐 주는 동료 직원들과 주변의 격려에 힘입어 짧지만 강렬했던 3개월간의 공단 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자신감과 자만심은 종이의 양면과 같다. 첫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자신감이 가득했으며 공단 입사는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인턴 제도는 절망만 있었던 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였으나 자만심이 생기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이후 정규직원 공채에 자신만만하게 도전하였으나 나에게 보란 듯이 파란색의 불합격 창을 보여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다. 나에게 그해 겨울은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심기일전(心機一轉).’ 마음을 다잡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입사 준비를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였으며 NCS 공부와 「국민건강보험법」 공부를 병행하였다. 전년도 자소서 문항을 보고 해당 답변을 몇 번이고 고쳐 써 보았다. 처음으로 코피도 흘려 보고 독서실에서 밤을 지새워 보았다. 인생에서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순간이었으며 오롯이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고 준비하였던 시간이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흐릿했던 목표

가 뚜렷한 모습으로 바뀌는 시기였으며, 험준한 산의 정상에 향해 올라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늘 가슴속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되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굳게 있었으며,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였다.

세 번의 쓰디쓴 고배를 마시고 2021년 12월, 꿈에 그리던 목표를 이루어 냈다.지사장실에서 빨간 배지를 달며 빨간색 사원증을 목에 걸고 동료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누군가는 무섭고 긴장되지 않느냐며 물었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였다. 무서움은 따뜻한 웃음으로 표현되었고 긴장감은 기분 좋은 떨림으로 다가왔다.

현재 입사 1주년을 얼마 앞둔 주임으로서 지역 건강보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에게 공단은 어두운 절망 속에서 손을 건네주었고 인생의 목표를 설계해 주었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 은인이다. 무엇보다 기관 특성상 동료 직원들은 나를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이○○ 주임으로서 대하였으며 편견 없이 본인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거시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편견 없는 채용을 진행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하는 곳으로 볼 수 있으며, 미시적 관점에서는 ‘나’라는 개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곳이라고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 수는 264만 5천명(2021년 기준)으로 확인된다.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넘어졌던 나에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평등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 채용을 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다 나은 기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 청년인턴
고졸 채용 | 지역인재 채용 | 장애인 채용

인 쇄 2022년 12월 27일

발 행 2022년 12월 30일

발행인 김 재 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 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인 쇄 경성문화사

ISBN 979-11-6655-169-7

